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족함 없도록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3월 4일 (토) 제 162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목회자의 바른 관계형성, 사역 건강성 척도!

바나리서치-페퍼다인대, 가족·절친·멘토·교인 관계 설문결과 보도

목회자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형성과 친밀도는 목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근간이 된다. 그러나 수평적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목회자는 가족과 친밀하고, 절친(친한 친구)들이나 멘토들과 교류하며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 리더십을 나눌 평신도들이 있는지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바나리서치는 페퍼다인 대학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00명의 담임목사들과 전화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목회자의 관계 건강성을 설문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와 가족, 절친이나 멘토 형성과 교류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리더십 공유를 물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How Healthy Are Pastors' Relationships?, 95% 신뢰도, +/-3.1% 오차율).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하면서 마주쳐야 하는 영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압박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족에게까지 여지없이 다가온다. 따라서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96%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즉 70%는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26%는 "좋다"라고 배우자와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반면에, 미국인 기혼자들 중 46%만이 자신들의 결혼 관계를 "너무 훌륭하다"고, 35%만이 "좋다"라고 답해, 대조적으로 15%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이혼의 경우에도, 목회자들은 10%의 이혼율을 보이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2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라면 경계 되는 재정적 부담도 결혼의 건강성으로 해소하고 있다. 사례비 즉 1년에 4만 달러 미만을 받는 담임목회자들 중 83%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단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목회자들 중 35%는 자녀들과의 유대감이나 친밀감 정도에 있어서도 두텁게 지내려고 애를 쓴다. 따라서 자녀들과의 관계 형성 지수에 있어서도, 60%는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36%는 "좋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 역시 미국인들의 평균 수치(46%, 32%)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에 전념한 나머지, 자녀들과 일상을 같이 하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었다. 집보다는 교회나 모임으로 자녀들과 여행도 변변히 못해보고 생일도 같이 하지 못한 담임목사들 중 34%는, 자녀들 중 하나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후회하고



목회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과의 친밀감도 중요하다

있었고, 7%는 아예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포기한 자녀들도 있다고 슬회하고 있었다. 결국 목회자 가정에 있어서 사역이 초래하는 영향은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상관없이 목회자의 사역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과연 목회자들은 친밀한 친구와 건강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설문에 응한 목회자 중 2/3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즉 34%는 "매우 훌륭하다", 33%는 "좋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들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1)오직 1/3만의 목

회자들만이 우정 나눔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2)1/3의 목회자는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3)목회자들의 우정 지수가 일반 미국인들(28%, 33%)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건강하고 활발한 교류 즉 우정지수는 목회자 전 연령대에 분포돼 있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있고 오랜 목회 경력을 가진 담임목회자들이 젊고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한 담임목사들에 비해 우정지수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복음의 역동성으로 모여야 한다!

스몰그룹, 컴, 소그룹 구성원들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와 대처 방안 소개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마다의 다양한 환경과 구성원의 특성, 전통들이 그 기피원인이 된다. 한마디로 구성원들이 소그룹 모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단언할 수 없다. 개인의 성향과 소그룹 특성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실 소그룹 구성원이 모임에 참석을 기피하는 이유는 담임목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소그룹 리더들이 잘 알고 있다.

첫째,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역동성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무게감과 근심,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들을 구성원들에게 꺼내놓고, 스스로없이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일어난다. 또 함께 나누어 가진 아픔이 복음을 통해 해결 받는 경험을 가질 때 발전된 소그룹으

고 유익해도 결국 사람냄새를 맡고 돌아가게 되고, 소그룹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진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소그룹은 구성원들 간에 영적, 인격적 존중이 있다. 영적, 인격적 존중이 없는 소그룹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세우게 된다.

셋째, 구성원들의 수동적 반응을 방

역동성 체험이 중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운영 수동적 반응 방지 금물, 리더가 약속은 꼭 지켜야

로 자라날 동력을 갖게 된다. 이런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한 리더와 구성원들은 다락방의 배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했느냐는 소그룹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둘째, 소그룹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리더십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는 고백을 자주해야 한다. 리더가 주님의 지도력 아래로 내려앉아, 구성원이 직접 소그룹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이 깨지면, 아무리 재미

치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때, 구성원들의 능동적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그룹의 목적, 모임 시간, 사역의 목표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비밀유지가 가능할 때 구성원들은 안정감을 갖고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처음에 온 사람이 어찌 낯가림이 없겠는가? 당연히 수동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모임 시간과 헌신의 책임, 나눔과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 소그룹 모임의 목적을 정확히 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1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김풍운 목사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13면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신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14면

2017 선교사집중훈련 및 PGM북미권역선교대회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일정 2017년 5월 15일(월) - 21일(주일) 6박 7일
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출,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250 / 부부(2인) \$400 (항공료 자부담)
장소 필라 안디옥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훈련내용 선교의 제4물결, PGM 4대 핵심가치, 선교사례, 타문화권 전도, 지역사회 선교전략, 선교와 영성관리, 직장과 선교, Here & Now 전도실습, 캠퍼스전도전략, 선교집회 등

현재 30개국 220여명의 PGM 선교사들은 26개 전문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PGM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실

"전문인선교사의 헌신과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마치시면 PGM 선교사로 파송되어 PGM 전문사역(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선교사집중훈련에 지원하세요!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주강사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PGM 국제대표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PGM 정책이사



김은범 목사
사령의글로벌비전교회 담임
PGM 정책이사



양훈언 목사
Hispanic Ministry



박상수 선교사
PGM 선교사
Here & Now 사역



폴현 선교사
모아뱅크 은행장



김현영 선교사
PGM 선교사(과테말라)
교수/축산전문사역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사역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빈민사역



조상명 목사
청년/캠퍼스전문사역



고대운 선교사
PGM 선교사
다민족교회개혁



이준선 선교사
City Campus Ministry



Jay Kim 선교사
PGM E.M. 훈련부장



연사미열 선교사
PGM KM 훈련부장

교육사역 유광수 선교사(라테탈라) 비아누에바시에 자리한 55개 국공립학교내 성경을 도덕수업 교재로 사용하여 범죄도시였던 비아누에바시가 교육 도시로 변해왔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청에 속한 3개 도시로 이 사역을 확장될 예정인데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물사역 김현경 선교사(케냐)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설치하고 위생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물론, 지역교회를 지원하여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축산/교육사역 김현영 선교사(과테말라) 33년간 미국 수의병리연구관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산칼로스국립대에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젓산양 축산법을 가르치고 ESL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VBS John Park 선교사(미국) 6년간 자비량으로 VBS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가 전혀 없던 영국 웨일즈교회에 어린이, Youth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민/공출 양동태 선교사(그리스)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그리스명에서 난민들을 위한 공출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민족교회개혁 고대운 선교사(미국) 300여 다민족이 살고 있는 Upper Darby에서 축조전도, 노방전도를 통해 다민족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직리더교육 김OO 선교사(그) Beyond Korean Diaspora! C국 가정교회에서 70여명의 인턴선교사를 배출했으며 가정교회 자녀들을 교육, 훈련하여 한국 평택대로 유학을 보내어 차기 크리스천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시론

수퍼볼(Super Bowl) 이야기



김봉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지난 2월 5일 저녁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제 51회 수퍼볼(Super Bowl) 게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필자는 미식축구를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생활 31년차에 접어들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게임이라 부른 주일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게임을 보게 되었다. 텔레비전을 켜는 땀 제 삼 쿼터 6분이 지나고 있었다. 3대 28로 뉴잉글랜드 팀이 지고 있었는데 불과 13분 만에 25점을 얻어 동점을 만들었고 수퍼볼 역사상 첫 연장전에서 점수를 얻으므로 승리하게 된 것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반전이였다. 주일 후 만나는 미국인들의 대화에서 그 경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약 1억 명이 상이 시청하면서 필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기를 보며 느낀 점을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다.

첫째, 인생도 공처럼 둥글다. 특히 떨어진 풋볼은 어디로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젠 이겼다고 생각했던 아틀란타팀이 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뉴잉글랜드팀이 이겼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크게 이기고 있다고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지금 크게 지고 있다 하여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인생경기장에서 마지막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들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후시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 진 것 같아도 그 결과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그 인생이 이긴 인생이다.

전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네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일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전9:10-11).

둘째, 인생의 승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한다. Patriots의 승리에 빼놓을 수 없는 몇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코치 빌 벨리치(Bill Valley Chic)와 쿼터백 톰 브래디(Tom Brady)다. 벨리치는 수퍼볼에서 5번 우승을 이끈 명장이고 브래디는 7번째 수퍼볼 무대에서 쿼터백으로는 역대 첫 5회 우승을 맞붙고 동시에 역대 첫 최우수선수(MVP) 4회 수상이라는 영예도 안았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실력과 경험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브래디가 던진 공을 리치버 줄리안 에델만(Julian Edelman)이 받은 일이다. 약 2분 남은 때에 20-28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 공을 에델만이 잡지 못했다면 이기기 못했을 것이다. 브래디가 패스한 공을 Falcons의 한 선수가 먼저 잡으려다가 놓쳤을 때 에델만은 몸을 던지며 잡게 되었는데 그 공은 먼저 넘어진 상대팀 다리에 맞고 튀어 오른 공이었고 그 공이 땅에 거의 다 닿을 무렵에 가까스로 잡게 된 것이었다. TV 중계자들은 모두들 믿을 수 없는 일(unbelievable), 놀라운 일(amazing)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이기는 자였고 다윗은 지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경기시간이 끝났을 때 다윗이 이기고 사울은 졌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삼하3:1).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5:10).

인생은 공처럼 둥글다. 그래서 지금 이기고 있다고 자만하지도 방심하지도 말아야하며 후시 지금 지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참다운 인생승리자가 될 것이다. 2017년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경기를 모두 잘하기를 기원한다!

pwkim529@gmail.com

미 진보주의, 트럼프 지지를 상승시킨다(?)

NYT, “진보주의 독선적 신념이 보통미국인들 보수주의 선회로 만들었다” 분석보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영화감독 지망생을 양성하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제프리 메드포드(46)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다. 보수 성향 유권자로서 공화당에 표를 쥐어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벌써 메드포드 씨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있다.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그랬고, 자꾸 불거지는 지나친 친러시아 행보도 공화당 대통령에게 품었던 메드포드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보였다.

트럼프를 찍지 않은 진보성향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메드포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철학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한다. 트럼프를 뽑은 건 잘못이고, 트럼프는 대통령감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에도 동의

한다. 그렇지만 메드포드 같은 이들은 여전히 자칭타칭 진보라는 사람들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니, 낼 수 없다.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댓글을 주고받을 때, 뉴욕이나 LA에 있는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할 때, 그는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메드포드는 매년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우월감에 신물이 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메드포드와 같이 진보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배타적인 신념이 신물을 느껴, 오히려 보수주의로 돌아서며,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통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한다(Are Liberals Helping Trump?).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 궁지에 몰렸어요.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식입니다. ‘당신, 내 의견에 100% 동의해요, 안 해요? 100% 동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이미 글러 먹은 거예요. 트럼프의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지지한다고요? 생각이란 걸 하고 사시는 분 맞아요?’ 심지어 제가 적극적으로 무슨 의견을 낸 것도 아녜요. 그냥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저를 어느듯 그렇게 몰아붙여 놓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는 마침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 선거 당일 밤, 한 친구는 영퀴스트 씨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런 글을 남겼다. “너란 놈 진짜 역겹다.”

영퀴스트는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맹목적인 비난에 오히려 반감이 생겨 트럼프를 더 지지하게 됐다고 말한다.

보수주의자들도 물론 선을 넘을 때가 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나라에 해가 되는 대통령이

트럼프 규탄 대규모 시위는 일상적 정치문화 돼버려 현재 분열 상황 ‘남북전쟁과 그 직후’에 비교하기도

적인 목소리는 트럼프 취임 후 곳곳에서 급격히 분출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이토록 무책임하고 심지어 위험한 인물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최근 자신들을 향한 도덕적인 비난이 선을 넘었으며, 일종의 “윤리적 불세비즘”을 방불케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진보주의자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묵살하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는 국가와 정부의 모습이 유일한 선이자 정당이라고 굳게 믿는다. 게다가 신념의 영역에 토론은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배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 대도, 소셜미디어상에 혹은 헐리우드 스타의 입에서 나오는 트럼프 시대를 향한 분노의 표현도, 진

보주의자들의 눈에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상식적인 비판이고, 귀담아들을 만한 주장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온건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조차 이런 비판을 접하면 진보적인 사람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등 떠밀린다고 말한다.

“좌파들의 비판은 도를 넘은 욕설이나 다름없어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헐담하는 트럼프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작 광장히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죠.”

민주당의 텃밭이자 진보적인 성향이 압도적인, 그래서 트럼프를 찍었다고 실토하는 것이 마치 1950년대에 동성애 자임을 밝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테크 스타트업의 영입직으로 일하는 브라이스 영퀴스트(34)의 말이다.

영퀴스트는 처음 몇 달 동안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겼다. 누군가 옆으로 뚫어볼 때에 흡집을 낼까 봐 두려워서 승용차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스티커도 붙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적힌 모자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곳은 휴가를 보냈던 중국밖에 없었다. 데이팅 앱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데이팅 앱 튜터의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자 사절”이란 문구를 걸어 놓은 사람이 수두룩했기 때문이

라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남을 설득하려면, 먼저 경계선상에 있는, 설득 대상이 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겉보기에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는 보수성향 유권자들 가운데 진보주의자들이 가교를 이어 이야기를 나누려는 대신 있던 다리마저 태워버리고 자기만의 논리와 신념에 자신을 가두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notice about a change in editor-in-chief.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s B.S.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program, featuring an airplane and pilot photos.

목회자의 바른 관계형성, 사역 건강성 척도!

(1면에서 계속)

먼저 50대 이상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친구들과 삶을 나눈다"며 상당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고, 30년 이상 시무했거나 현 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담임목회자들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나는 목회에 있어서 리더십에 대해 질문했다. 즉 독불장군인가 아니면 비전을 나누는 리더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60%)은 비전을 세우고 정립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들이 정한다고 응답했고, 35%는 팀 목회 즉 부목회자나

스텝 아니면 평신도들과 비전을 만들고 같이 나간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 유형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담임목회자들은 사역을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상당수(80%)가 당회나 집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같이 기도하며 사역을 실행한다고 말한다.

당회는 여전히 교회 사역 방향과 행정을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회가 "엄청나게 후원해준다"(67%),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 분담을 준다"(60%) "비전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치를 나눈다"(57%)로 각각 응답했다.

이러한 당회 즉 목회자-장로들 관계 형성은 중대형교회, 즉 250명 성인 교인들 이상인 교회들에서 교회를 꾸러나가는 핵심 모임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회와 목회자의 건강한 관계성 역시 사역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또 다른 함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당회를 통해 리더십을 후원받고, 공유하며 그리고 같이 책임지는 목회자일수록 사역 만족도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당회 구조를 가진 교회일수록 '갈등'이나 '괴물 싸움'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망 칼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케플러는 "기쁨은 인생의 요소이며, 인생의 욕구이며, 인생의 힘이며, 인생의 가치이다. 인생은 누구나 기쁨에 대한 욕구를 갖고 기쁨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테이비즈는 "마음이 기쁘면 얼굴빛이 아름다워진다"고 했다. 우리에게 기쁨은 최고의 행복이요,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요, 독특한 기능이다. 베헤트는 "인생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는 람프와 같다. 참된 기쁨은 이열무도(耳熱無聲)라 했다. 이열무도라 함은 참을 수 없고 억제 할 수 없이 기뻐서 춤을 추고 뛰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요 15:1-12). 사람들이 기뻐하는 때는 임시 공부하던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을 때이다. 이 밖에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결혼 할 때에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런 기쁨보다 더 기뻐 때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를 위해 고난 당할 때이다. 뱀전4:13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롬8:18에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셋째, 복음을 전할 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옳은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벌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고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눅10:20)고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바란다. 주님처럼 온유 겸손하고 기쁨이 넘치는 언어, 표정, 눈동자,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기쁘고 계속 기쁨 영원한 기쁨이다. 배가 고파도 기쁘고, 병들고 혈압을 고혈압과 배신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기쁨이 떠나지 않는 생수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기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마음이 즐겁고 몸의 모든 세포가 되살아나고 압도 치료된다고 하였다.

기쁨은 만병통치의 묘약이다. 건강 장수하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면 몸도 건강해지고 풍기는 인정도 범바람처럼 훈훈하고 얼굴도 고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진다. 기쁨이 충만하면 눈빛도 맑고 인상도 다정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바란다. 행복과 기쁨은 부자나 가난함에 좌우되지 않고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거지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역만장자 부자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다.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 5:16-18)고 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옛말에 "함소상희(含笑相喜)"라는 명언이 있다. 기쁨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문 밖에 나와서 보고 또 보고 웃음을 머금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된 기쁨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 있을 때 오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미 진보주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시킨다(?)

(2면에서 계속)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말한다.

"일종의 신뢰의 나선형이랄까요? 이미 우리가 한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이를 무조건 믿지 못하고 뼈뺏하게만 받아들여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순전히 트럼프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는 쉽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규범으로 여겨지던 것들을 깎고 무시했다. 미국 민주주의 제도 전체를 아마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트럼프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트럼프주의가 겹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문제의 근원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상태를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최고조에 이른 1960년대와 비교하곤 한다. 지금보다 폭력적인 갈등의 정도가 훨씬 심했던 그 시기의 종지부를 찍은 건 우리 모두 알다시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1972년 대선 압승이었다.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 닉슨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거리에서 외치는 반전구호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로 여기며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낙승을 거뒀다.

어떤 사람들은 또 1960년대의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훨씬 튼튼했다며, 지금 상황과 비교할 만한 때를 찾으려면 역사책을 훨씬 더 앞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의 더그 맥아담 교수도 지금의 상황에 견줄 만한 시기는 남북전쟁과 그 직후가 유일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할 정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치 체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긴장과 갈등 상태에 놓인 적은 (남북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는 어

느닷 일상적인 정치문화가 돼버렸다.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되지만, 하이트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토대로 만약 시위대 중 일부라도 폭력을 사용한다면 시위대가 외치는 주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평화적인 집회라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평화 시위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위는 나라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지금 이 나라가 일종의 내전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제 주변에도 내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두려워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뽑은 앤 오코넬(72)의 말이다. 오코넬은 행정 비서로 일하다 은퇴하고 뉴욕주 시라큐스에 살고 있다. 오코넬은 빌 클린턴 대통령을 두 차례나 뽑은 민주당원이다. 하지만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을 고르는 기준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에서 정체성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바뀌면서 민주당을 점점 멀리하게 됐다.

그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연설을 했던 걸 푹푹히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이 동감했던 그 연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되살려 실행에 옮기겠다고 주장한 것이 다음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이제는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됐죠.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어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코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중도보수 성향 시민들 가운데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퓨리서치 센터가 한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가 거의 없었지만, 공화당 성향의 중도층은 70%가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0%에 그쳤다.

메드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폐차 직전 고물 자동차에 비유했다. "찰스톤에서 애틀랜타까지 한 500km 되는 거리를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난감한 와중에 과연 굴러가긴 할까 싶은 고물차 한 대가 나타나서 자동차 찾았냐고 묻는 거죠. 와, 정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른 그 방법을 택할 텐데, 선택지는 이 고물 자동차뿐입니다. 심지어 500km를 버텨줄지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아직은 차에서 내릴 생각이 없다고 메드포드 씨는 말한다. (러시아 외교관과 기밀을 공유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후보 마이클 폴린의 스캔들도 아직 그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

지난해 말 메드포드는 뉴욕에 사는 한 여성과 온라인을 통해 만났다. 몇 시간 동안 통화할 만큼 친해졌다. 뉴욕에서 실제로 만나보자는 데까지 얘기가 무르익었을 때, 메드포드는 자신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무척 당황스러워하며, 뉴욕에 오지 말라고 했다. 메드포드는 결국 뉴욕에 갔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온 것을 숨겼다.

"단지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찍었다고? 됐어 넌 꺼져, 이런 식이죠."

오코넬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페이스북의 모든 글을 지우고 가능한 한 TV도 안 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은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제가 메릴 스트립을 배우로서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를 보러 가도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작품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우리 정말 좀 더 마음을 넓게 쓰지 않았다가는 불 영화가 하나도 안 남겠다고 푸념하듯 말했죠."

오코넬의 걱정은 영화 선택지가 줄어든 데서 그치지 않는다. "변화라는 게 절대 완전히 바다를 칠 때까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거든요. 알고 올 중독자도 정말 나락에 떨어뜨려야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요. 아직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멀었어요."

2017년 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세상을 이기는 힘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한두 번은 자동차 운전등록금 고지서 받아보았을 것이다. 저도 LA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받고 급히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그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운전면허증을 내주면서 "내가 목사인데 권사님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가는 중이라서 속도를 못 느끼고 달렸노라"고 고백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커다란 성경책도 있고 또 옆에 사모님 같은 동글동글한 아줌마도

앉아있는걸 보았는지 "급해도 목사님, 운전은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하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며칠 지난 뒤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인지 교통경찰도 목사를 예우해 주더라며 그 경험담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학교에 다니던 제 사촌동생이 그 얘기를 잘 들었는지 과속운전을 하다 그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제 얘기가 생각나서 운전면허증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Officer,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사촌 형도 목사고 저도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경찰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더라.

운전법규를 어겨 지금 딱지 때이는 것과 사촌 형이 목사라는 사실 아니 지금 신학교 다니는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믿음과 신앙생활의 배경이나 경력은 아무 상관없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대단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 경력도 없는 초신자인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서 오히려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고백했다. 내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루어놓은 나의 경력과 업적은 내 믿음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어제의 경력과 오늘의 내 믿음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주어지는 그 능력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은사와 능력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안에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녹슬어 못 쓰게 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성경에 보면 돌씩 돌씩 파송 받아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귀신추방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귀신이 그렇게 도망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 어제는 어제 주신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법인데 제자들은 어제 능력이 나타났으니 오늘도 나타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결국 지난날에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받았으니 내 안에 있으려니 하고 무관심하면 그 은사, 그 능력은 흔적만 남고, 추억만 남고,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는 것이다. 경건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에너지가 다 소모된 배터리처럼 겉모양은 멀쩡한데 껍데기만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정작 필요한 지금에 와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까지 참피함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가정에서 그 불을 밝히고 쓰

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은사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사용하는 것이다. 어제 받았던 능력 은사는 어제의 추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능력주시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뜻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결국은 나 자신 때문이다. 경건의 생활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다. 제자들이지만 귀신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고 도리어 망신만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다. 그리고 질문에 예수님은 한 마디로 답하신다. 마가복음 9: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 있는 믿음생활! 기도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어제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내 기도생활만이 유일한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아이들이 하늘에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눈먼 아이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에게 가서 너는 연을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연을 날리느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손에 연줄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네! 이 줄을 잡아 당겨보면 연이 잘 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뵈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줄을 한 번 당겨보라! 끊어진 지 오랜 것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거나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기도의 줄을 당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회에도 나와 보고 금식기도도 해 보고 자신만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줄을 당겨주시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실수는 기도 없이 생각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는 기도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먼저 기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기도의 줄을 당겨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생활에 있다. 우리의 삶과 일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일군들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16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변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과거의 생활 습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죄를 범한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와 거듭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 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기록하고 의로우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우신 자로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연이나 대학 강의실이나 연구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생명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23)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믿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인 동시에 복음의 요약으로, 복음, 믿음, 구원, 능력, 하나님의 의 등 신약성경의 기본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권세도 힘입니다. 힘 있는 군인들도, 지식 있는 학자들도, 돈 있는 재벌들도 권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앗수르의 산헤립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이 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돈이 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도 부립니다. 그래서 돈의 힘을 재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여 이긴 자가 없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지만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 제한과 무제한,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17절)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혼용 화장실” 칙령 무효화

2월 10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하기를 2016년 1월부터 미 전역 공립학교에 오바마가 행정명령까지 내렸었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보호하지 않겠다 (will not defend)”라고 발표하였고, 2월 22일에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하며, 이제는 미 연방부가 아닌 각 주정부와 School District이 각주의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최선의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권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던 성전환 화장실 법안은 미 전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시도가 되어 2013년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이며 동성애 정치위원회 리더들인 Tom Ammiano와 Toni Atkins, Ricardo Lara, Mark Leno 상·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통과가 되어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사인함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2014년에 AB1266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기독교단체들의 치열한 반대시운동이 있었으나 끝이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화장실” 칙령이 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성전환 화장실 정책”

2013년부터 추진되어 결국 2016년 새해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 0.1% 정도에 불과한(미 전역의 성전환자 0.3%, CDC, John Hopkin’s Research) 성전환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99.9% 나머지 남녀 학생들의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까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사용에서 혼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에 오바마는 연방법무부를 통해 모든 공립학교들에게 “성전환자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성전환 화장실 정책을 의무화 하며, 만일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소송에 걸릴 수 있으며, 연방정부 지원

자금을 잃을 것이다”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오바마의 “성전환 화장실 행정명령”에 13개주가 오바마 정부를 고소&결과!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반대하여 13개의 주들이 오바마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2016년 8월 21일에 텍사스 미연방 지방법원의 연방판사인 Judge Reed O’Connor은 아래에 적힌 이유로 오바마 별칭까지 따르는 행정명령에 일시적인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게 해당되며, 오바마의 행정명령인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고마운 금지명령

O’Conner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들을 Private하게 남, 녀 따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정법률단체 중 하나인 Family Research Council의 회장인 Tony Perkins는 트럼프 법무부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헌법에 어긋나는 칙령을 철회하여 학부모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결정에 비난하는 단체들의 의견은 어떤가?

오바마정부의 지지로 그동안 힘

일 잘 행동하는지를 격려하고 상을 주는 콘테스트와 페스티벌까지 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사들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렇게 해서 성전환을 원하는 어린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주류 미디어, 매거진, 뉴스를 도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행사: 남녀를 바꿔보는 날 (Gender Bender Day)
http://www.wnd.com/2013/05/official-cross-dressing-day-for-kids-sparks-outrage/결론

이번에 트럼프대통령과 그 행정

오바마 행정명령 ‘성전환 화장실 법안’ 에 13개주가 소송 미전역 0.1% 동성애학생 위해 99.9% 일반학생 희생시켜 트럼프 행정명령은 모든 학생의 성별 존중 의미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반대하기 위한 폭력적인 데모도 없었음 뿐더러 “평화시위데모” 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수 기독교단체, 교회들의 반대시운동과 간절한 기도운동만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결정이유는 1972년도에 작성된 미 교육부 화장실 사용 지침이 나와 있는 Title IX 문장에 오바마정부는 “학생 본인이 원하는 성별(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 포함돼야 한다고 왜곡되게 해석했지만 O’Conner 판사는 말하기를 Title IX의 문장이 전혀 애매하지 않고 Title IX는 교육기관이 “성별에 따라 별도 화장실, 라커룸, 샤워를 제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정부는 O’Conner 판사의 판결이 소송을 걸었던 13주에만 ‘금지’명령을 해당해야지, 미 전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힐러리 후보가 2017년 대통령후보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며 다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일시적이었던

과 자금, 권력까지 너무 커진 동성애 로비단체들인데, 대표적으로는 ALC나 Equal Rights을 외치는 진보주의 정치단체들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동성애운동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HRC)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임명하고 이번 판결에 큰 역할을 한 보수주의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과 교육부장관도 비난했습니다. 세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환자 학생들의 동등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은 늘 그렇듯이 성전환화장실 법안이 어떻게 99.9%의 일반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십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전환 어린이들을 만들어내는 행사들...기도제목!

오바마정권 때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던 동성애/성전환자 운동단체들이 주로 동성애부부를 통해 어린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이 어리게는 3, 4살만 되면 여자, 남자 아이들을 다른 성으로 분장하여 ‘누가 가장 남자처럼 또는 여자처럼 하고 나왔는지’ 누가 다른 성처럼 제

부가 오바마와 이전 정부의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폐지하는 이유는 주류 미디어와 진보주의자들의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환자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성별을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며 △공립학교의 시설들은 화장실이나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과 교육부장관도 비난했습니다. 세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환자 학생들의 동등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은 늘 그렇듯이 성전환화장실 법안이 어떻게 99.9%의 일반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십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미 연방정부와 새로운 대통령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세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령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부다 오바마와 이전 정부의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폐지하는 이유는 주류 미디어와 진보주의자들의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환자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성별을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며 △공립학교의 시설들은 화장실이나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과 교육부장관도 비난했습니다. 세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환자 학생들의 동등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은 늘 그렇듯이 성전환화장실 법안이 어떻게 99.9%의 일반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십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미 연방정부와 새로운 대통령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세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령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회에서 장례식 때 주보에 ‘천국 환송 예배’란 단어 사용에 대해 간혹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환송예배라는 단어가 가능한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LA에서 김 전도사

A: 이것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를 성경적으로 규명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누가복음 6장의 부처처럼 음부(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의 최종 종착역은 분명 지옥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처럼 그의 옥체까지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영육이 불못에 던져지며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기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뵈옵고 요한계시록 7장처럼 그 곳에서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쉬며 천국의 영광

성도가 죽어 그 영혼이 천국 갔으므로 ‘천국환송예배’ 단어사용은 가능

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집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만족한 교제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인 엔데메오는 외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거함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면서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을 보면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욥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는 천만 천사들과 교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상의 총회(기쁨의 연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종말론의 학설 중 무년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현재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는 목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정한 복은 현재 세상의 것보다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천국의 복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윌리엄 헨드릭슨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천국의 영광의 세계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히브리서 10장 22절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인 주님계신 천국에 입성한 과거가 되었지만 유가족의 입장과 시각에서는 성도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기에 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천국환송예배라고 쓰는 그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천국 갔으므로 교회가 장례식에서 천국환송예배라고 쓰는데 슬직히 뭐가 큰 문제입니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참린게 라이(Chamlinge Rai)



네팔의 이 조그마한 독립왕국인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히말라야 남쪽 경사면을 따라 위치해 있다. 이 곳은 대략 110여 개의 다른 종족의 고향으로서 각기 자신의 문화를 갖고 살아오고 있다. 이 나라는 원래 농업국이며, 대부분의 인구가 농사에 의존해 살아오고 있지만 여

전히 가난하고 발전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참린게 라이는 동부 네팔에서 가장 큰 종족인 '라이'로 알려진 사람들의 집합체에 속해있다. 라이족의 각 종족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또한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는 고유 언어에서부터 지방언어의 혼합까지 변형해왔다. 그들의 얼굴형태는 몽골인을 닮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몽골과는 아무런 혈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신인 마레마(marema), 마하데바

(mahadeva), 니나(nina-지구의 딸)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다.

삶의 모습

참린게 라이는 원래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는 못한다. 저지대에서는 쌀농사를 짓고, 고지대에서는 감자, 옥수수, 밀, 보리를 기른다. 여자들이 씨를 뿌리는 동안 남자들은 밭을 갈며, 가족들은 수확기에는 단결해서 서로를 돕는다. 농부들은 남은 수확물을 등유나 소금 같은 필요한 것들과 교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부족한 수입을 수공예나 봉제업 등으로 보충한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을 가진 돌이나 나무로 된 집에서 산다. 집들은 보통 주변에 나무로 된

현관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라이인들은 매우 용감하고 친근하고 겁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또한 군인은 고위 군인일수록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 라이인들 사이에 있어서 결혼은 매우 큰 축제 의식이다. 어떤 결혼은 콩피(kongpi)라고 하는, 결혼의 세부적인 것들을 맡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간소해진다. 선물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결혼날짜가 잡히게 된다. 어떤 결혼들은 여자를 "보쌈(arranged kidnapping)"해 감으로써 간소화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결혼할 때는 많은 가족들과 마을의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신앙,

신부의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린다. 이때 보통 돼지나 수탉 같은 동물들도 잡게 된다. 음식과 음료수가 풍성하게 제공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보리와 감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밤새 노래와 축제를 즐긴다. 신앙 귀족계급을 포함한 네팔 인구의 90퍼센트가 힌두교인이다. 그러나 힌두교와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며 약간의 혼합되었다. 참린게 라이의 대부분이 힌두교인이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수가 애니미즘 신봉자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들은 불교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혼합은 그들 사이에서 넓고 다양한 신들과 경배 행위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관

습들은 대부분 탄생, 결혼, 죽은 같은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다. 힌두교의 영향은 죽은 자들에게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도록 독려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숨겨져 있었고, 잊혀져 있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개종도 심하게 반대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금지시켰다. 신앙교제에 대한 형벌도 너무나 가혹하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린게 라이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 또는 영화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이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단체도 없다. 그들 중 그리스도인은 4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시나이반도 크리스천 피난행렬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수 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피난길에 나섰다. 최근 3주간 무려 7명의 크리스천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26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시나이 반도의 항구도시 이스마일리아 시(市)에서 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성도들이 황급히 도시를 떠났다. 이스마일리아 시는 수에즈운하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다. 과거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많이 찾던 관광명소였지만 이제는 IS의 거점지로 전락해 이집트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됐다. 복음주의교회측은 시나이 반도에 머물던 160여 가족 중 100여 가족이 이미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 중에는 엘 아리스에서 공부하던 200명 이상의 학생도 포함돼 있다. 이집트 현지 매체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이미 몸을 피했다. 레스토랑 문을 닫고 피난길에 오른 한 남성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면서 "이들(IS)은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피난 행렬은 지난 23일 배관공인 카멜 요세프씨가 IS의 총격에 쓰러지면서 가속화됐다. 카멜 요세프씨는 엘 아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됐다. IS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테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카멜 요세프씨는 그 7번째 희생자였다. 엘 아리스에 살던 65세 사드 하나씨는 지난 20일 아들 메드와(45)씨와 산 채로 불태워지고 있는 동안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지난 1월에는 와엘 유세드 멜란드라는 남성이 엘 아리스 상점에서 복면을 쓴 IS 대원에게 피살됐다. 지난 12일에는 바흐자트 윌리엄즈 카르카르 차 안에서 피살됐다. 또 아델 사우키씨와 카말 타우피크 가레스씨가 이달 초 역시 복면의 IS 대원에게 피살되기도 했다.

희생된 크리스천들은 모두 콥트교 신자였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로 9400만 명의 이집트 인구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S는 지난해 말 시나이 반도의 크리스천들을 겨냥한 협박 비디오를 공개했다. 비디오에는 '신에 뜻에 따라 너희에게 큰 충격을 안기는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11일 카이로 압바시아 구역의 콥트교 교회인 성 베드로 교회 예배당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폭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8명이 숨졌다.

이집트에는 최대 1500여명의 IS 조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시나이 반도를 넘어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와 서부 사막지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지에서 남은 한 목회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전례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면서 "나도 고향집을 떠나야 하나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난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집트 인권자유위원회 소속 미나 타벳 연구원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테러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콥트교회측은 25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IS의 테러가 잇따르고 기독교인들의 피난이 가속화하는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가짜뉴스' 주장에도 미국인 52% '언론신뢰'

거듭된 '가짜 뉴스' 주장에도 미국인 과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언론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23일 쿠파피앰대학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의 언론 신뢰도가 52%,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는 37%에 그쳤다고 전했다. 여론 조사팀이 '주요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과 언론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한다고 믿느냐'는 항목에서 나온 답변이다.

민주당 지지자의 86%가 언론을 신뢰한 데 반해 공화당 지지자의 78%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백인이라도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견해차도 상당했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백인 55%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언론에 믿음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백인의 55%는 언론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백인층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46%로 트럼프 대통령(45%)을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비백인의 절대다수인 68%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언론을 신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내는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 매체', '미국인의 적(敵)'으로 규정해 논란을 불렀다.

특히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된 주요 매체의 여론조사결과마저 가짜 뉴스로 부정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한 매체로 뉴옥타임스, NBC, ABC, CBS, CNN 방송 등 보수성향의 폭스 방송을 뺀 파급력 큰 주요 언론이 모두 포함됐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악마화'했지만, 실상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언론을 신뢰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쿠파피앰 대학 측은 설명했다.

미국인의 90%는 또 언론이 공직자의 책임을 따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72%) 또는 다소 중요하다(18%)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하는 방식(61%),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도하는 방식(50%)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58%), '러시아 스캔들' 비화 조짐마저 이는 대(對) 러시아 정책(57%) 모두 부정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쿠파피앰대학은 이달 16-21일 미국 유권자 1천323명을 대상으로 전화·유·무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의 표본오차는 ±2.69%포인트다.

WSJ '김정남 피살' 북한 첫 담화는 내부용 메시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이 침묵을 깨고 23일 내놓은 첫 공식담화문이 무늬만 외부용 겨냥할 뿐 실제로는 내부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남의 암살을 다룬 해외 뉴스가 급격하게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김정남 암살이 한국 주도하에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 짜낸 음모라고 비난한 담화문은 이런 동요에 대처하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지난 13일 숨진 이후 열흘 동안 침묵하다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을 '공화국 국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짚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했다.

WSJ는 외부에서 담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며 담화문 발표 자체가 위기를 맞은 북한 정부의 실태를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독재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외부 뉴스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견고한 장벽을 쌓아왔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에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메모리 카드나 DVD 등의 기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러한 차단막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작년 10월 28일부터 80세에 이르는 북한인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 매체 뉴스를 읽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김정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도 북한 정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 사실로 주목된다.

WSJ는 북한 정부가 김정남의 존재나 암살을 감추는 데 실패하면서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 내부 북한인들을 겨냥한 담화를 냈다고 해석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 연구센터의 연구원은 "이번 담화가 북한 내부로 보내

는 메시지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새뮤얼스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충성파를 단속하려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내부나 외부 충신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 해외에서 이번 담화문과 같은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김정남 피살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한 나라를 대상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금융제재 등을 가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재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피살됐다. 이 사건은 북한 정권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이라는 정황이 현지 경찰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지만,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이번 피살사건에 북한 대사관 직원 등 8명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전도자' 팀 켈러 설교단 떠난다

'최고의 도시 전도자'로 불리는 팀 켈러(66) 미국 뉴욕 리디머교회 목사가 설교단을 떠난다.



뉴욕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교회로 알려진 리디머교회의 수석목사를 맡아온 그는 오는 7월 1일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가 26일 보도했다. 켈러 목사는 주일예배를 통해 자신의 퇴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일과 영성' '센터 처치' '탕부 하나님'(이상 두란노) 등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켈러 목사의 결정은 오래 전부터 세워진 계획이다. 그의 목표는 대형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다. 1989년 초 그를 포함한 15명은 교회 창립을 위해 기도했다. '뉴욕 맨해튼에 신앙에 회의적인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공간을 빌려 첫 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연말 교인은 250명으로 늘어났다.

리디머교회는 93년부터 뉴욕 다른 곳으로 예배 장소를 늘렸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2003년 예배장소는 맨해튼의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웨스트사이드 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3곳에 5000여명이 출석 중이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 프로그램 '시티 투 시티'(City to City)를 통해 전 세계 54개 도시에서 381개 교회를 세웠다. 도시 전도자로 불리는 이유다.

켈러 목사의 퇴임을 앞두고 리디머교회는 장소 별로 각각 독립, 3개의 교회가 된다. 교회는 각각의 담임 목사와 장로를 세우게 된다. 4월 부활절에는 각 교회가 다시 3곳으로 분리, 모두 9곳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미래의 분립을 위한 준비다. 리디머교회의 모습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디머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모두 '회의론자 환영'(Skeptics Welcome)이 있다. 켈러 목사는 뉴욕의 젊고 진보적인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질문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저서 '일과 영성'에 담겨 있듯이 켈러 목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교인들

과 나누고 고민했다. 이는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게 된 이유가 됐다.

소그룹 활성화와 구제 사역도 대도시에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디머교회는 새 신자들에게 각자의 성향에 맞는 6-12명 규모의 소그룹을 추천한다. 교인들은 이 소그룹에서 신앙과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눈다. 또 리디머교회는 교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 전체에게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열어 둔다.

켈러 목사가 현장을 아예 떠나지는 않는다. 설교에서 자유로워진 그는 사역자로서 리디머교회 프로그램 '질문하는 신앙'에서 강연하고, 다음 세대와 설교자를 가르칠 예정이다. 켈러 목사는 27일 트위터에서 "나는 퇴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세대를 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재차 있게 표현했다.

한국여성 2030년 기대수명 90세 돌파

한국 남녀의 기대수명이 2030년 세계 최고에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년 출생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돌파해 인류 역사의 새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21일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보건 대학 연구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출생 한국 여성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각각 90.8세, 84.1세다. 기대수명 월드컵이 있다면 남녀 공동 우승을 하는 셈이다.

수명 연장의 일등공신은 교육과 의료기술, 영양수준이다. 연구를 주도한 마지드 에자티 교수는 "한국인은 비만을, 흡연을, 혈압이 낮다"면서 "높은 의료기술과 의료시설 접근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대폭 상승했다. 2010년 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4.2세, 77.1세로 당시 일본 여성(86.7세)과 남성(79.4세)에 비해 낮았다.

한국 여성은 전체 조사 대상국 남녀를 통틀어 기대수명 90세를 유일하게 넘겼다. 한국 여성 다음으로는 프랑스(88.6세)와 일본(88.4세), 스페인(88.1세) 여성 등이 뒤따랐다. 한국 남성 뒤에는 오스트리아(84세)와 스위스(83.9세) 남성 등이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였다.

미국은 2030년 기대수명이 낮은 범주에 속했다.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3.3세, 79.5세로 예측됐다. 헝가리, 멕시코 등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실한 의료보험 체계와 높은 인산부 사망률, 비만을, 살인율이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절제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27일 '한국과 노르웨이의 술 규제 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음주운전, 강간, 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류의 유통을 규제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절제회는 "알코올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과 정부, 언론 등이 나서서 협력투쟁해야 한다"며 "주류유통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에선 공휴일과 일요일에 주류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다. 음식점만 예외일 뿐, 모든 가게에 적용된다. 주류 판매는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의 오후3시까지만 허용된다. 평일 슈퍼마켓 등에서 맥주만 판매하는데 이마저도 오후 6시 이후엔 팔지 않는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국영인 주류전문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면 120-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류 자체에 대해 세금도 매우 높다.

노르웨이 정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거액을 들은 스웨덴에서 '알코올 열쇠'도 도입했다. 이 열쇠는 운전자가 스스로 적절한 음주량을 기준을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진리를 떠나서

각 시대마다 영웅이 있었으며, 이 시대에도 영웅을 찾고 있다. 사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마르틴 루터가 접하였던 매우 특수한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를 17세기 교회의 영웅으로 간주해야 할까?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그의 눈에 비쳐진 중세 교회의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때때로 감정적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하여 교회 전체를 흔드는 일을 감행하였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비쳐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결코 자신감을 지니지 못했던,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지내던 신앙인이었다. 루터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만일 루터가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만듦을 두려워하며 당장 불경건한 말을 그치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루터 종교개혁 신학의 출발점은 그의 개인적인 삶,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비쳐진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이 낯은 일종의 압박감이었다. 이 독특한 감정을 독일어로 Anfechtung(안헨크통)이라 한다. "두려움" 또는 "영적 고통"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적 고통"이라 부르려한다.

루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는, 그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정신쇠약은 물론 정신분열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내면세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접하게 된다. 하나는 그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여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지냈던 "영적 고통"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던 "영적 고통"에 항상 놀려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할 수 없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려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었다. "영적 고통"을 느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과연 루터는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실제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일삼는 삶을 살았을까? 루터는 누구보다 하

다. 그의 신학은 상아탑에서 이루어진 지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적 고통"이 그에게 성경을 찾게 하였다.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수록, 그는 겸손하게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영적 고통"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한

포에 굴복하게 하는 잘못이 분명히 보인 것이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였으며, 자신이 성경을 통해 얻은 십자가의 복음이란 해결방법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향이었던 것이었다.

루터가 찾은 진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훗날 자신

로 규정하였다. 루터의 주장이 왜 오류인가를 조목조목 따져 밝히는 글을 저술하여 사람들에게 퍼트리면서, 그를 화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어거스틴수도회 독일 분회에서 자신의 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1548년 4월 8일에 열린 하이델

능력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다. 또한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참 잘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십자가 신학은 역설의 현상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현명함을 드러내셨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욕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우리에게 큰 도전보다 고민거리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진정한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지닌 파워에 대해 깊이 묵상하여야 한다. 과연 나의 신앙과 섬김의 목적이 영광스런 칭송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영웅을 좋아한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웅 심리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다. 루터는 본인이 영웅이 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가 경험한 개혁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신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었다.

21세기 교회의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 하는 성경에 비쳐진 "나"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루터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자신의 모습 루터의 "영적 고통" (Anfechtung)은 종교개혁 성격 규정짓는 초석

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영적 문제가 가중되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무디거나 강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비쳐진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는 나"를 버릴 수 있다는 두

것이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께 비쳐진 나의 모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루터의 개혁 사상은 성경을 중심" 하였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깊이 연구해서 제안

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 고통"은 십자가로 향하게 하였던 자신에게 유익한 도구였다. 회심한 후에도 간혹 "영적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해결을 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평생 그가 하나

베르크 논쟁 자리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부처(Bucer)가 참석하기도 하였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의 핵심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었다. 그가 1513년부터 시편 강의를 한 후, 성경주석에 근거한 그의 신학을 집대성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수단 십자가 복음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 십자가 복음 증거 하는 성경에 비쳐진 "나"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려움이였다. 루터가 경험한 "영적 고통"은 단순히 지적 갈등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상실하고 버린 것이 아니기하여, 자신의 실존 자체가 흔들렸던 총체적 위기감이었다. 우리는 이런 독특한 영적 갈등을 신앙으로 버티며 해결해야 했던 루터의 모습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진리를 찾아서

루터의 "영적 고통"은 향후 지속되었던 종교개혁의 성격을 규정짓는 초석이 되었다. 루터의 신학은 분명 성경에 근거한 것이나, 하루 아침에 쉽게 형성된 것이 아니었

하였거나, 성경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혁 사상을 세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내 자신의 개혁"이 출발점이 되었다. 그가 갑급한 심정으로 성경을 찾은 것은,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중세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고 있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려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내어 교회의 권위와 율

법을 의식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1518년 4월에 열렸던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가 1517년 10월에 발표한 95개 조항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순식간에 퍼지자, 교회와 교황은 그의 활동을 금지하라고 명령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당연히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가 저술한 '95개 조항'은 16만부가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퍼졌다. 다급해진 교회는 루터를 이단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들과 '십자가의 신학자'들을 구분한다. 전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기대하는 자들이며, 후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들이다.

십자가 신학은 루터를 영웅으로 만들 가능성을 전혀 없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대단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도움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앙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 (4) 설교 원고 - 열왕기상 2:1-9
 -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를.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정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TExegesisPaper.pdf)
 -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영명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2) 시험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 3) 고시부 회계: 조용철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3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갈등 앞에서 갈등하지 마라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가 힘들다고 답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회의 70% 이상이 설교 사역이고 설교의 성패에 따라 교회 성장의 성패가 갈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설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인 해결책이다.

이때 다음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대화에 대해서 이를 지켜볼 증인을 반드시 확보하라. 셋째, 목회자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할 때에 결코 비난하거나 당사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지 말라.

유형 2: 일은 안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사역을 진행하다보면 맡겨진 일을

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논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인간의 말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리더십의 원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내면 깊숙이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이다.

〈문제해결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손해일 수 있다.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라〉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갈등의 벽을 허물어라〉 갈등의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큰 벽이 존재한다. 벽이 존재할 때는 제대로 반응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해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 상대방과의 갈등의 벽을 허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을 성장으로 재창조하라

교회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 존재하며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며 더 나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교회도 사회 영역 속에 포함된 기관이며 하나의 조직체이지만 갈등에 있어서 특별한 환경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장배경이 다르고 개인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등이 가지는 역기능적 요소들 때문이다. 특별한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교인과 교인 간의 적대감, 반목, 시기, 질투, 심지어 폭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된다. 갈등이 극대화되고 만성화되면 결국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경우도

갈등을 두려워 말고 교회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기회로 여겨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문제해결보다는 관계 중시... 대화로 접근

면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런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설교자와 교인과의 인간관계가 잘 수립된 후에야 설교가 은혜롭게 전달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가 해결해야 할 교회 내 갈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역자를 비난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과 일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다.

유형 1: 사역자를 비난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사역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그 속에 안주하면서 사역자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역자가 화를 잘 내고 남을 통제하며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사역자를 분노하게 만들고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런 교인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 가치관을 만들어 사역자 외에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이런 유형의 교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판자가 말하는 문제 관련 당사자들과, 교회기관 회원들이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해서 사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할 것처럼 하다가도 아무런 이유 없이 뒷걸음질 치는 교인을 만나게 된다. 촉박한 일정 가운데 일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그 교인은 누가 봐도 불안정한 상태로 일을 방치해 놓는다. 문제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목회자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며 험담한다는 데 있다. 이런 유형의 비판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좀처럼 간파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목회자와 다르더라도 목회자와 단호하게 대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태도는 극장부림과 지각, 비협조적인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후 조종 등으로 표출 될 수 있다.

이런 수동적이며 호전적인 유형에 대처하는 방법은 목회자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목회자가 받은 느낌을 솔직히 말해주며 비효율적인 방식에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교인이 발생시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갈등 극복의 Leadership Solutions

사역자라면 교회에서 한 번 이상의 갈등을 경험했을 것이다. 사실 때 순간이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모였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아니다. 문제 발생 배후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상처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흔들여 놓는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내기 전에 먼저 대화하라〉 상대방에게 찾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라〉 상처를 받았을 때 듣는 일은 쉽지 않다. 감정적으로 자금을 받으면 인간의 마음은 수만 가지의 상상과 반응을 한다.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가능하다면 얼굴을 맞대고 차분히 대화하라.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의 해결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을 확인하라〉 대화를 하기 전, 대화 도중, 대화 후에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 갈등이 심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교회가 분열되더라도 상대방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갈등이 조직의 생존에 불가결한 적응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없으면 조직은 정체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멸의 운명을 맞게 된다. 또한 갈등은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갈등이 가지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은 목회자에게나 신앙공동체에겐 반감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갈등을 미리 최소화하고 야기된 갈등을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적당한 갈등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교회 리더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해 갈등의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지혜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천국 최고 멧쟁이 요나단 (2)

다윗이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며 동행하는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맹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우도 없이 나라위해 충성을 바칠수록 깊어지는 사울의 시기심, 두려움은 그를 제거해야한다는 집착증 노예로 내몰립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용사인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과감히 아버지 사울에게 무죄한 그를 왜 죽이려 드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멧청아 저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든든히 왕으로 서지 못할 줄 모르느냐? 도무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사울이 다윗을 끌어오라 명하니,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느냐?"고 변론하니 아들도 죽이려고 단장을 던져 치려하니 요나단이 화가 나서 자리를 뜬다.

과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진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사울이 다윗은 내 왕위의 위협적인 존재니 필히 제거해야 한다고 알려주어도 순전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자신보다 더 왕이 될 자질이 풍부해 보이는 다윗을 인정하고 저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집안 간에 평화 언약까지 맺으며 확약을 시키고 안심을 시켜주고 도망가도록 주선을 합니다. 언제 들어도, 아무리 반복해도 멋진 드라마 같은 심화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걷는 왕의 훈련이나, 저를 저 되도록 세워주는 사울의 필박이나, 요나단의 잡아주는 손이 또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훈련은 누구에게나 갑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과 과연 바꿀만한 것이 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생명을 걸고 내어주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주시는 심정을 읽습니다.

이왕이면 사울의 역할보다는 요나단의 역할이 멋집니다. 과연 주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을 고사하고 내게 있는 작은 권리, 자존심이라도 초개같이 절고 감동주시는 주님의 심정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단은 언제나 생각해도 참으로 멋진 당신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도록 암암리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지요? 그 아비 사울이 그토록 악하게 집요하게 죽이려 따라다녔던 저의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도운 것이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의 분이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감탄스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소유한 것 다 버렸지만 천국에서 주님의 그 큰 마음을 소유한 요나단 요나단의 큰마음을 사랑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주님의 품어주는 마음이 절로 생각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타산적이고 계산에 빠르게 달려가는 사울의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고 요나단의 날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자기를 전부로 주는 사랑! 주님의 심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길 사모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ok.com</p>	<p>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s.com</p>	<p>앵커리지베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p> <p>Tel: (915)422-0288, Fax: (915)751-4366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7)542-0288, Fax: (717)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scotacoma.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건강한 교회성장이 시작되길” 2017 한인남침례교 선교대회 성료

미주남침례교 한인총회(총회장 반기열 목사)가 주최한 2017 한인 남침례교 선교대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 주제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게이트웨이신학교(총장 제프 로 그 박사)와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반기열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역자들의 교회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으로

귀중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며 “세미나 기간 내내 주님의 은혜로 그 영향력이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한인총회 위에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교대회 첫날 저녁집회는 최병락 목사(세미안교회)가 “교회를 사랑합니다”(엢1:23)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둘째 날 오전집회는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가 ‘말씀사역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저녁집회는 유관재 목사(성광교회)가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단6:1-10)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오전집회는 짐윌리엄스 박사(게이트웨이신학교)가 ‘Pastoral Ministry in the Real World’라는 주제로 그리고 저녁집회는 제프로그 총장이 ‘Trusting the Word of God’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 주제 강연은 양원환 목사(게이트웨이신학교 교수)가 ‘말씀의 목상과 적응을 통한 영적 성장과 발전의 추구’, 정승룡 목사(늘사

람침례교회)가 ‘건강한 말씀사역’, 김재현 목사(North American Mission Board/조지아)와 정응교 목사(미주남침례교회한인총회 국내선교부)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SBC국내의 선교정책’, 안상희 교수(게이트웨이신학교)가 ‘설교를 위한 비유해석’, 정영민 목사(포도원교회)가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갱신’, 최성은 목사(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교회갱신의 본질과 실제’, 주민호 선교사(카자흐스탄 선교사)가 ‘선교지 카자흐스탄에 세워진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반재근 목사(사미밸리침례교회)가 ‘치유를 체험하는 건강한 교회’, 고승희 목사가 ‘Sexuality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건강’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2017 한인 남침례교 선교대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 주제로 게이트웨이신학교와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총회장 반기열 목사가 축하인사하는 모습



애들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제 1회 시니어사역 전문가 훈련학교를 개최한다.

시니어사역전문가 훈련학교 열린다 “깊은 영성으로 원숙한 시니어의 삶 살아가기”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시니어사역위원회(담당사역자 김재홍 목사)는 오는 3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시니어사역 전문가훈련학교를 열고 시니어사역 훈련 시간을 갖는다.

인 인생을 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훈련학교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시니어 사역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역의 중점 목표를 7가지 영역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7가지 영역은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지혜롭고 원숙한 시니어’,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새롭게 발전하는 시니어’, ‘설기는 리더십의 시니어’, 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경제, 문화 등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시니어들의 사역을 위해 열리는 본 훈련학교에서는 시니어 사역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니어 사역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본 훈련학교를 담당하는 김재홍 목사는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해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분들을 이렇듯 모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니어 분들이 단순히 은퇴(Retire)로 인생을 마무리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로서 선교적

이때에 시니어들의 사역을 위해 열리는 본 훈련학교에서는 시니어 사역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니어 사역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본 훈련학교를 담당하는 김재홍 목사는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해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분들을 이렇듯 모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시니어 분들이 단순히 은퇴(Retire)로 인생을 마무리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로서 선교적



OC교협 2월 정기월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단장 초청 · 미자립교회 지원 OC교협 2월 정기월례회...세미나, 영적각성집회도 계획

오렌지카운티(OC)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는 지난 22일 큰빛교회(담임 조현형 목사)에서 2월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인준 받고 준비 중)에게 이호우 목사가 소정의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OC교협은 올해 각 교단과 협력을 추구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회원강화 및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다양한 세미나 및 영적각성집회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OC교협은 올해부터 매 월례회 때마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각 교단장들을 초청해 교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선교비를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자세한 문의는 박재만 목사(대외행정담당부회장, 714-952-0191)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이에 따라 이번 첫 월례회에서는 감리교단 감리사인 임영호 목사가 교단소개 및 인사를 했으며, 배경태 목사(필렌감리교회), 김효영 목사(늘산양교회), 이상호 목사(개혁

LA동-안신기, 서북부-강재원, 남서부-최진호 미주성결교회 서부지역 지방회 개최, 회장선출

미주성결교회(총회장 황화균 목사) LA동, 서북부, 남서부 등 서부지역 지방회가 지난 2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돼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부지방회에서는 강재원 목사를 지방회장에, 그리고 6일과 7일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이경원 목사)에서 개최한 제38회 남서부지방회에서는 최진호 목사(샌디에고하나로교회)를 지방회장에 각각 선출했다.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 열린 제38회 LA동 지방회는 회장에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를 선출했으며, 온누리성결교회(담임 강재원 목사)에서 열린 제37회 서북

다음은 각지방회 신임임원 명단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Family Day



박한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는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해 법정 공휴일로 지킨다. 유래는 1990년 앨버타 주의 부지사였던 Helen Hunley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한다. 온타리오에서는 2008년부터 ‘Family Day’를 지키고 있다.

패밀리데이가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 2월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추운 날씨에 마음도 꽁꽁 얼어붙기 쉬운데,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다.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따뜻한 분위기 속에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병폐는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집에서도 TV 앞에서 지내며, 각자의 방에서 자기 생활에 파묻혀 지낸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스마트 폰이나 PC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는 집은 있는데,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정은 무너졌다는 것이다. 집은 단지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참된 집이 아니다. 진정한 집은 가정이다. 하우스보다 홈, 패밀리가 더 소중하다. 집은 불에 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정은 불에 타 사라질 수가 없다. 집값은 시세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가치가 가족에게 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다. 가정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 미래를 꿈꾸며 환난과 역경을 인내로 이겨내는 가정, 다음세대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다. ‘Family Day’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수24:15).
bible66@gmail.com



미주성결교회 서부지역 지방회가 열렸다. 사진위는 한빛교회에서 열린 LA동지방회, 가운데는 온누리성결교회에서 열린 서북부지방회, 그리고 사진 아래는 오렌지중앙교회에서 열린 남서부지방회 모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축복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찬힐링센터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중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 주문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지방회	LA동	서북부	남서부
지방회장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강재원 목사(온누리성결교회)	최진호 목사(샌디에고하나로교회)
목사부회장	이재광 목사(연약한인교회)	구자인 목사(포틀랜드성결교회)	김성식 목사(토론토우리교회)
장로부회장	송영환 장로(로고스교회)	김완규 장로(온누리성결교회)	변국현 장로(유니온교회)
서기	양명선 목사(에덴성결교회)	김병석 목사(밴쿠버베다니교회)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부서기	권순광 목사(위드힘교회)	최영기 목사(포틀랜드성결교회)	오명현 목사(코너스톤교회)
회계	이정석 목사(면류관교회)	주환준 목사(오레곤선교회)	김종률 목사(샌디에고다시야교회)
부회계		최흥식 장로(포틀랜드성결교회)	권영태 장로(유니온교회)



지난 13일 남가주연세대대학교동문목회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연목회 신임회장에 김기동 목사 선출
“언더우드 선교사 뜻 받들겠다” ...수석부회장에 조종곤 목사

남가주연세대대학교동문목회자회(연목회, 회장 이종렬 목사)는 지난 13일 로렐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기동 목사를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렬 회장의 사회로 남상국 목사의 기도, 조후연 목사의 성경봉독, 고재원 목사(직전회장)의 ‘그 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 17:1-7)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김정복 목사(증경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김기동 목사(세리토스 중남교회)가, 수석부회장에 조종곤 목사(사우스베이션교회)가 선출됐다. 연목회 회장은 연세대학교 학부 출신 목사인 신학도 출신 목사, 연신원 출신 목사 등이 매년 순차적으로 회장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이번에 회장이 된 김기동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 출신으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오렌지카운티교회 협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기동 신임회장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세대학교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받들어 조금이나마 미주사회와 교계와 동문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섬기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회장 임취임 예배는 3월 13일에 열리게 된다.

▲문의: (714)262-2428
(기사제공: 남가주연세대대학교동문목회자회)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전도대학교 2017년 봄학기 안내

뉴욕전도대학교(교장 허윤준 목사) 2017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3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637-1470

호성기 목사 초청 영적 대각성 집회

뉴욕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가 3월 8일(수) 저녁 8시30분부터 11일(토) 새벽 5시45분까지 총 6회에 걸쳐 영적 대각성집회를 갖는다.

▲문의: (917)517-2980

씨즌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 개강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즌(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초급반 강좌(64기)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열린다.

▲문의: (718)414-4848

3.1절 맞아 뉴욕 기독교단체 기도회 촉구

국가조찬기도회뉴욕지부, 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 기독교관련 단체들이 기도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대뉴욕지부(회장 강현석 장로)는 3월 1일 각 교회와 수요예배에서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문을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공동 기도문은 창조주이며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민족의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취주심을 감사하며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고 세속 가치에 매달렸음을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길 간구하고 있다.

또 500년 전 비텐베르크의 개혁운동과 110년 전 평양대각성운동의 불길에 꺼지지 않도록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을 강조하며 남북통일과 지도자의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제 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3월 2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3천여 명이 모여 기도했다.

또 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지회장 안창의 목사)는 3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삼일절 기념

태극기 집회를 갖는다. 동 지회는 "1919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3.1 운동의 합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도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통성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서있다"며 "은갖 불법이 진실을 허물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 태극기 밖에 없다"고 밝히고 "뜨거운 합성으로 조국을 위해 외치자"고 역시 뉴욕목사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외에 뉴욕한인회와 광복회는 3월 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저지한인회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오전 11시 각각 제 9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에 앞서 뉴욕우리교회는 2월 28일에 앞서 뉴욕사우더 위안부기림비행사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설립43주년 기념예배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김성국 담임목사 부부, 장영춘 원로목사부부가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교회를 살아가자" 퀸즈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3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 사회로 이규성 장로의 기도후 찬양대 찬양이 있었으며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행 7:36-3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성국 목사는 "우리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생명의 도를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야 한다"며 지난 43년간 퀸즈장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이어 장학금이 수여됐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학생 총 25명에게 수여된 장학금은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졌다.

김성국 목사는 장학생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그들의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심과 순종을 통해 역

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날 고국환 장로와 이근우 장로가 은퇴했다.

고 장로는 1979년부터 퀸즈장로교회에 출석해 1998년부터 시무했으며, 이 장로는 2007년부터 시무했다. 고 장로는 은퇴 후에도 계속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 장로는 자녀가 있는 버지니아로 이사함으로써 2년 일찍 은퇴하게 됐다.

또 임정 장로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임정 장로는 2015년 5월 퀸즈장로교회 선교사인 캄보디아 씨넨립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년간 사역했다. 캄보디아 선교 후 임으로는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부부가 파송됐다.

이어서 혼성중창단과 클라리넷 트리오, 여성중창단 등이 특송 및 연주를 했으며, 김성국 목사의 광고 후 장영춘 원로목사 축도로 모 든 행사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이사회 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노비, 뉴욕차일드센터서 아시안 이민자 위한 콘서트

지난 22일 오후 4시, 이노비가 뉴욕차일드센터의 아동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 가족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공연은 뉴욕을 중심으로 각 각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던 두 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하는 협업이다.

이 공연에는 뉴욕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첼리스트 황지연이 음악감독을 맡아 바이올린에 홍아름미, 비올라에 이남근이 참여해 현악트리오로 아름다운 콘서트를 만들었다.

뉴욕차일드센터 아시안클리닉 윤성민 소장은 "요즘 어수선한 나라 분위기에 이민자들이 많은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더 많아지신 것 같다"며 "특히 이번 콘서트의 주제를 '치유와 위로(Healing and Comfort)'로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노비 김재연 사무총장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현악 트리오로 아름답고 따뜻한 공연을 준비했다. 플러스 지역 이민자 분들 등 삶의 무게로 힘든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연은 무료 공연이며 뉴욕 나눔재단과 William and Munja Orzolek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패밀리터치 제 3대 김선 신임 이사장 취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지난 4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KACF의 후원으로 이사회 수련회를 가졌다.

또 부이사장으로 김재덕 이사가, 사무총장으로는 케빈황 이사가 선출됐고, 보다 효과적인 사역과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와 후원모금 행사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제 3대 김선 이사장은 "지난 16

년 동안 패밀리터치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과 건 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로 그리고 후원자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패밀리터치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7년 선교 및 사역일정 발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상열 목사)가 지난 22일 2월 월례모임을 갖고 사역보고 및 2017년 일정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전희수 목사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설교 이상열 목사, 합성기도, 축도 박성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열 목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후 14:6-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용기는 돈이나 지식, 사회적 지위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복이 쉽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갈렙을 통해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에 앞서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입성을 주장한 갈렙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둘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 각 갈렙의 헌신과 용기를 본받아 대

히 나아가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자"고 전했다. 2부 회무는 이상열 목사 개회기도 후 전희수 목사의 사역보고, 박 이소라원 목사의 광고, 김인한 장로의 폐회기도로 진행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7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기선교: 8월 14-17일, 엘살바도르(황영진 선교사) △지원선교: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 화장실 및 부뚜막 개선 사업 △투원자의 밤: 12월 3일(주) 오후 6시.

이날 새로 구축한 웹사이트(www.breadngospel.org) 메인 화면이 공개됐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기아대책과도 연결되며 동 기구 관련 정보와 아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열 목사는 "매달 월례회로 모이는 회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동후원 증가"라고 말하고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이 사역의 핵심가치를 놓치지 된다"며 "아동후원을 통한 영혼구원"을 강조했다.

3월 정기예배는 3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East (NY, NJ) region,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전 세계에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라!

KAPC 총회교육부 주최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총회 교육부가 주최하는 서부지역 목사장로 기도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글렌데일그레이크교회(담임 정광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고택원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총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목사장로기도회를 열지 못했는데 3주전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기도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주 서부지역 기도회에 이어 다음 주에는 캐나다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동남아에서 기도회를 열게 된다. 기도회를 통해 새롭게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모두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수철 목사(가주노회장)의 사회와 이성주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개회예배 및 저녁집회는 박준배 목사(북가주노회장)가 기도했으며 최동진 목사(전 남가주노회장)가 '예수를 바라보자'(1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동진 목사 인도로 특별기도를 했는데 신학교를 위한 기도



KAPC 서부지역 노회연합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가주노회장) 사회로 시작, 조은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준우 목사

를 안병권 목사(남가주노회)가 △41회 알라스카 총회위해 기도를 조정기 목사(LA 노회) △미국 땅을 위해 트럼프 정부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허재영 목사(군목출신)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철 목사(남가주노회장) △소속교회 목사와 장로를 위한 기도 한재현 목사(북가주노회 서기)가 각 기도 제목의 마무리기도를 했다.

이날 집회는 정진구 목사(전 가주노회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 새벽집회는 김종술 목사

(동가주노회장) 사회로 시작, 조은철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준우 목사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회 소망 웰 에이징 어워드에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 1회 소망웰에이징어워드 초대 수상자에 김동호 목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 1회 소망웰에이징어워드 시상식을 2월 22일 오전 11시 LA 용수산에서 개최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비전으로 활동해온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귀감 삼아 타인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망웰에이징어워드'를 제정했다.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김동호 목사(여는 목회자로 또 상담사역자로 지난 20여 년 동안 LA가정상담소, 기독교상담소 외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역자로 한인사회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김동호 목사는 1933년 서태원 목사(서재필 박사의 형 서재춘의 아들)의 4남2녀 중 맏딸로, 1957년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58년 김중정 장로와 결혼한 뒤, 1960년 유학생 남편과 함께 도미, 2남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자 나이 50이 넘어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 입학, 1991년 석사학위를 받고 1995년에는 필립스대학원에서 Marriage Family Child Therapy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안수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최정철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경식

가 '오지 않는 새벽'(시57: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노철 목사가 축도했다.

오후 4시에 열린 세미나는 이영희 목사 사회로 시작, 김광삼 목사가 기도했으며 전대구 목사가 세계와 함께'(사60:1-3)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저녁집회는 조정기 목사 사회로, 이항영 목사가 기도를, 권혁현 목사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정현 목사가 축도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 및 새벽집회는 이규만 목사 사회로 시작, 유진상 목사가 기도했으며 신효철 목사(총회교육부장)가 '기도하시는 예수님'(눅6:11-19)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정기총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2017년도 3월 월례예배 및 정기총회가 3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734-0007

세계기도일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회장 최순자 권사)가 주최하는 세계기도일예배가 4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398-7471

나성영락교회 설립44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설립 44주년 기념예배가 3월 5일 주일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323)227-1400

합창세미나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가 주최하는 합창세미나가 3월 4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갖는다. 강사는 한국 국립합창단 지휘자 구천 교수이며 회비는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25달러(새콤과 즐거운 찬양집 무료제공), 일반&성가대원 20달러, 단체 25명이상 15달러.
▲문의: (909)319-2158, (310)650-4842

한인가정상담소 무료상담 확대 실시 R.O.C.K 프로젝트...서류미비자, 무보험자도 가능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21일 오전 10시30분 한인가정상담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인가정상담소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서류미비자 등을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일부 진행해왔으나 2017년부터는 이를 'R.O.C.K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서비스, 기금모금 행사를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그동안 KFAM에서는 무료상담을 예산부족으로 원활하게 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실시해왔는데 첫 번째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이 50달러였으며 최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25달러의 비용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쌀과 우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식돼 상담받으러 오는데 애로사항으로 발생해 지속적인 상담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지난 2015년과 16년에는 한인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무료상담 기회가 마련됐으며 무료상담을 받은 한인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KFAM에서는 무료상담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런칭해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 이유로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한인들이 도움을 받고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한인가정들의 회복을 위한 'R.O.C.K(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지난 2015년 한인 후원자가 5만 달러를 기부,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무료 상담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R.O.C.K 카운슬링 기금과 맥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R.O.C.K 프로젝트로 정해졌다.

R.O.C.K 프로젝트의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은 서류미비자, 저소득층, 가정폭력 사회범죄 피해자, 무보험자 등이다.

▲후원문의: (213)235-4867/실비아권 프로젝트 디렉터, (213)389-6755

(박준호 기자)



갈릴리커뮤니티교회 창립8주년 감사예배에서 김봉훈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 유언의 말씀 ‘선교사명’ 감당” 갈릴리커뮤니티교회 설립8주년 기념예배

갈릴리커뮤니티교회(담임 김봉훈 목사)가 설립 8주년을 맞아 26일 오전 11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송재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용웅 장로가 대표 기도했으며 호산나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봉훈 목사가 '교회의 본질'(행20: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봉훈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다. 교회를 통해 영혼구원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교회는 법보다 은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교회를 은혜공동체라고 한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는 곳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성도들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진리의 터다. 진리의 능력은 보존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세상은 교회가 버리고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는 성결하고 진실해야 한다. 세상을 닮아 가면 안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유언적 말씀, '복음전하고 제자삼으라'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찬양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cusa.com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 (F) (213)388-8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1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이예배: 오후 1:20 영어권(침소:KDC, 침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9,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주권회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또는 방문),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www.mjpa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1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H),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Drive, L.A., CA 90006	엘버린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li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E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55-0009 Fax: (323)65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국교회, 촛불과 태극기 가운데 서다

기도로 맞는 3·1절 98주년... 국가적 위기해결 지혜 간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회가 '촛불'도 '태극기'도 아닌 '촛불과 태극기'의 중간지대에 서서 구국기도에 나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의 중심세력이 모두 참여해 3·1운동의 진원지였던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촛불과 태극기,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국민여론의 통합 당위성도 호소할 예정이다.

'1919삼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국민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사근 장로)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와 종각, 탑골공원 등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기도회는 교계 양대 기구인 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과 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분열된 지 5년 만에 처음 함께하는 연합행사다.

이 대표회장이 설교를 하고, 정 대표회장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교계 지도자들이 국가안보와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 통일 한국 등의 기도제목으로 특별 기도

에 나선다.

한기총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98년 전 일제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선언했던 선각자들과 3·1운동에 함께 나섰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한국을 위해 기도하려는 것"이라며 "양극으로 갈라진 촛불과 태극기 진영을 뛰어넘어 무엇이 조국의 미래에 빛과 소금이 될지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19년 기미독립운동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들로 목사와 장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며 "바로 지금이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회장은 "한교연과 한기총 대표들이 통합을 결의한 마당에 이번 기도회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일치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종로3가 탑골공원은 1919년 3월 1일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상징적인 장소다. 이들 민족대표는 독립선언문을 발표 뒤 곧바로 근처 태화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연행됐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희식 목사)도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명성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수원중앙교회 김장환 원로목사가 '조국은 부른다'는 주제로 설교한다. 김삼환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 유만석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박경배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정익 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3·1기독교운동 정신계승과 한국교회의 일치,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간구한다.

한편 한국기독교역사학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준비 학술심포지엄'이 23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에서 열렸다. 이덕주 감신대 교수는 '3·1만세운동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파와 종파,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민족과 사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극대화된 오늘 시대상황에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정신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이 빌라도의 재판처럼 되지 않게"

국가기도연합, 제18차 기도회 열고 현재의 공정한 심판 간구

국가기도연합은 25일 서울역광장에서 제18차 미스바구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종인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파송선교사는 시편 9편을 본문으로 "성경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재판부터 족장사사 선지시대, 요한계시록 사탄에 대한 재판까지 많은 재판이 나온다"면서 "이들 재판은 크게 의로운 재판과 불의한 재판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법치가 아닌 여론과 민심에 따른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 책임을 백성과 후손에게 돌렸다"면서 "인류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의 결과 죄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 사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의 눈치를 봤던 빌라도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들어 가면서 2000년 넘게 불의한 재판관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그의 후손들도 나라를 잃는 서러움을 당하고 600만명 이상이 대학살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에는 공정한 재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바울을 재판했던 베스도는 거짓된 여론과 선동, 민심을 따르기보다 법

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린다"면서 "이처럼 불의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은 역사에 기록돼 후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운명과 역사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빌라도의 재판이 되느냐, 베스도의 재판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국가적 재판을 앞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선교사는 크리스천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조차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간청에 결국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서 "이처럼 우리도 현재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곳 광장에서 18주간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다음주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가 여론에 따라 빌라도의 재판처럼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온 백성과 후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재

판이 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고 도전했다.

이 선교사는 "현재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헌법원칙과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간절히 매달린 것처럼 재판관 되신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자"고 강조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이영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다음주 후반부에 현재재판관 8명이 모여 평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도록 각고 노력"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재판관 8명의 사진을 보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속이는 영, 거짓 선동과 여론몰이에 속지 않고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오는 28일 '국가를 위한 1일 금식기도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에스더기도센터에서 개최됐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등에 대한 접촉과 교류·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는 정·관계 인사와 목회자, 평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부에서는 "통합적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조성호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포럼 내용을 주요 정당의 대북·통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는 한편 기독교 유권자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3·1운동'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北 조그런 관계자 만나 협의

남북 교계가 3·1운동의 유엔(UN)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한다.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 인사들 모임인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조 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과 최근 중국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W-KICA 김영진 상임대표는 "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아니면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

한국교회 목회자 절반 정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총신대학교 실천목회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 한국교회 목회자 설문조사' 결과 47.5%가 이같이 응답했다. '그래

안약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죄 사함' 등이 각각 2.5%였다.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선 '믿음으로'와 '제물 드림으로'라는 응답이 15.3%로 가장 많았다. 또 '율법을 지키므로' '무응답' 12.8%, '선택 받은으로' 10.2%, '그리스도 오실 메시야를 기다림으로' 7.6%, '선택된 유대인만 구원' 5.1% 순이었다.

목회자 절반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신대 실천목회연구소, 목회자 500명 설문조사

도 영원하다'는 응답은 52.5%였다.

'구원은 어떻게(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응답자 59.0%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답했다.

두 번째는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속죄 제물' 10.5%였고 이어 '예수 죽음 부활 생명으로' '율법 지키' '믿음과 열매를 맺음으로' '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선 32.7%가 '대속 제물로 피흘려 죽음'이라고 답해 '하나님사랑 이웃사랑'(14.0%) '죽음과 형벌'(13.7%)을 앞섰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수단'(9.5%), '구원'(7%) 등이 뒤를 이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둘다 비중이 똑같다'는 응답이 51.0%에 달

했다. 이어 '부활'(25.0%), '십자가'(17.0%) 순이었다.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 응답자들은 '십자가'(30.0%), '구원' '예수 그리스도'(17.5%), '십자가+부활'(15.0%), '예수이름 믿음' '예수믿고 말씀행함'(5.0%) 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이흥선 총신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현장 종교자유 침해, 교계 차원 강력 대응해야" 교육자선교회·교회연론회 포럼

학교현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억압받지 않도록 교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기독교 교사와 법조인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교회연론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회단체총연합회에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한 기독교교육자 포럼'을 개최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종교자유 침해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기성 춘천 소양초등학교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학생을 위해 기도해주거나 전학 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성경을 준 3명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과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교사가 주저지 않아서 먼 곳으로 인사조치 됐고 학교별로 종교중립을 준수하라는 공

문이 발송돼 학내 신우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이례적 징계, 의도적 표적감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표현을 못하도록 강제하고 학내를 무(無)종교화하는 데 발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교사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이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정교 분리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내리진 징계조치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면서 "이 같은 종교탄압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을 공격 영역에서 지혜롭고 대담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위안부 사죄·역사교과서 왜곡 철회를" 기지협 '3·1절 나라를 위한 기도회 및 시국강연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는 결의문을 통해 "지금 탄핵정국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어려움을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예배에선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김해철 전 루터대 총장이 '자유를 주러오신 예수'란 제목으로 설교했

으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시국강연이 있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중언 의원이 특별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배태선(세계목회자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김동권(기지협 공동회장) 최윤권(서울기독교대 총장) 박우관(알코올중독대책위원장) 목사가 헌시국 및 한국교회,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도했다.

제30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 수상자 고성현, 박완, 이인수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문화예술원이 주관한 제30회 기독교문화대상 시상식이 23일 오후3시 여의도 영산그라운드 홀에서 열렸다.

각 부문의 수상자는 △음악부문 오페라 '토스카', 가곡 '꽃잎과 바람' 바리톤 고성현 △뮤지컬부문 '명성왕후' 고종황제 역 배우 박완 △삼방 송부부 KBS TV 다큐멘터리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귀환' 연출 이인수다.

1부 수상작 발표 갈라콘서트는 기획위원장 정균양 목사의 사회로 뮤지컬부문 수상자 박완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뮤

지컬 명성황후 중 '그리운 근전', 찬양 '사랑' 연주하고, 음악부문 수상자 바리톤 고성현은 소강석 시, 곡 '꽃잎과 바람', 오페라 토스카 중 '테 데움'을 연주해 감동의 무대를 펼쳤다.

2부 시상식에서는 평택기독교문화예술원장 강현식 목사의 사회로

기획위원 손광호 목사가 기도하고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창세기 37:18-24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적 퍼스트부버가 되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수형 목사의 기념사에 이어서 원장 안준배 목사가 심사보고를 하고 각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고 사무총장 김창근 목사가 인사와 알림을, 총재 김용만 목사가 축도를 하고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해외 거주 북한인들 다각적 교류 모색해야 미래목회포럼 주관 '국민통합을 위한 성경적 통일 포럼'

"북한 내 유학파와 외교관, 해외 근로자들처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인적 그룹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역할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공산주의와 맞서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미래목회포럼(대표 박경배 목사) 주관으로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성경적 통일 포럼'에서는 여야 4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병행해진 남북관계에 대한 기독교계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들은 현재 대북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이 막혀 있는 만큼 기독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류와 지원의 재개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도 강조했다.

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대북 지원물품이 군수 물자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며 "기독교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정부가) 남북 경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경제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한층 더 진전된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물품 지원 등을 통한 북한 내 주민들과 교류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근로자나 유학생, 외교관 등이 중요한 교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 내에 민족자주세력이 형성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일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각 계 대표 33인을 선정하고 뜻있는 이들이 함께한 행사다. 가수 김강홍 코리아나 흥화자, 성악가 최경화 이지현, 시인 김소영,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예술공연단 등이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를 선보였다.

행사는 W-KICA 외에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 한일기독교의원연맹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한류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했다.

선교의 창 (73)

조국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태극기 집회에 가면 애국이고 촛불집회에 가면 중북인가? 촛불을 들으면 민주정의이고 태극기를 들으면 수구 꼴통인가? 조국 대한민국이 탄핵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 벌써 국정이 혼선을 빚은 지 5개월째가 되었다. 백성들은 마치 원수처럼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촛불 집회는 벌써 17차이다. 연인원 1,000만 명을 넘었다. 태극기 집회는 14차이다. 연인원 기백만 명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엄동설한에 얼마나 비생산적인 국력 낭비인가?

이러한 정국 대결은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는가? 문제는 앞으로이다. 현재의 탄핵선고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에 대선이 있다. 탄핵정국이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파 간 반목현상은 극에 달할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어려운 때이다.

1.1.3.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비유된다. 당시 유대 나라도 내외환(內憂外患) 가운데 있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예언을 했다. 그의 탄원은 눈물의 외침이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도 예레미야처럼 깨어 선지자 나팔을 불며 민족과 국가를 풀어야 한다. 우리 조국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1.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지근거리 에 있는 베냐민 지파 영도인 아나돗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솔로몬에 의해 아나돗으로 추방당한(왕상2:26) 아비달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예레미야 자신은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그의 예언은 제사장적 용어가 풍부하다. 그의 신학도 제사장 신학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 독신이었다(16:1-2). 선지자로서 활동 시기는 유대 왕 요시아 13년(주전 627년 경)부터 시드기야 11년(주전 586년) 말까지 약 41년간이다. 그는 앗수르의 몰락과 바벨론 제국의 발흥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유대의 마지막 네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으며 실제로 예루살렘

의 멸망을 목도하기도 했다.

2. 예레미야의 조국

당시 유대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다. 이 시기에 남조 유대는 주변 강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정도로 나약했다. 따라서 유대의 여러 왕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 사실 유대 멸망은 외세의 침입보다 내부 악행의 비중이 컸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백성들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패역한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유대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멸망과 재앙이 문에 앞드러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그를 핍박하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경고를 했으나 그들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 결국 유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멸망당하고 말았다.

3. 예레미야의 활동

예레미야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고독하며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정치와 종교적 권세들에 저항했다. 그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반역적인 유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기에 우는 자가 되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이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

어다"(예레미야애가2:18). 그는 이방인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의 유배 등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했다. 예레미야애가는 폐허로 버려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부른 비탄과 통곡을 시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포로생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은혜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외쳤다.

4.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답답한

미래를 위해 산고의 고통일 것이다.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해도 하늘은 열려있다. 따라서 3.1운동 때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해야 한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공산주의자가 아닌 이상 진보도 보수도 필요하다. 손등과 바닥은 땀 수 없으며 하나이다.

우리는 한겨레 한민족이다. 나와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고 적으로 볼 수는 없다. 세상에 가장 우매한 일은 적을 적시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는 것이다. 세상의 논리는 "너 죽고 나 살자"이다. 기독교의 사상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세속 논리에 휩싸이면 안 된다. 우리의 논리는 성경이다.

맺음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나 신앙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을 열어 시대와 민족을 보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 있을 못 보는 것은 불행이다. 지금은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필요하다.

세상 어디에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슬기로운 자는 문제를 없기를 바라기보다 문제 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다. 생즉사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 답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이는 희생을 필요로 한다. 물은 희생을 상징한다. 흙 속으로 스며들어 새 생명을 낳는다. 진정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희생하고 있는가? 그 희생의 증표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2월 27일 오후 8시 빌립보 교회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찬양, 북한선교 나눔, 합심기도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2017년 2월 통일북한선교 기도소식.

체포와 암살이 끝나고

지난 이 주 동안 중국에서는 북한선교 사역을 하던 여러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풀려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을 강화하고, 북한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단속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혜와 능력을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에 주시도록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3일에는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되었습니다.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두 여자가 사용한 것은 직접 자신의 손에 발라 김정남의 얼굴에 문지른 VX라는 독극물이었습니다. VX 독극물로 호흡기, 눈, 피부 등 인체에 흡수되면 수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유엔 결의 687호에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이 이번 김정남 암살로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멈추고,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함께 평화를 이루는 일들에 쓰임 받게 그 날을 속히 하락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깊은 어둠이 끝나길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고통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새벽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랜 겨울의 추위와 찬바람을 견디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봄바람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시간과 날씨의 변화는 자연의 이치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드시 오게 될 그 날을 기다림은 인내의 열매가 맺히지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전히 통제와 압박, 폭력과 착취의 질은 어둠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고통하는 북한 동포들과 탈북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것들을 보게 되길 역사의 주권자되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관심과 포기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품게 하신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복음통일과 자유희년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NIM 대표 임현석 목사
prblessnk@gmail.com

(1면에서 계속)


넷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이다.

시간 약속, 비밀유지의 약속, 개인 간의 약속, 특히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한 약속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런 신뢰가 깨지면 불신은 소그름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다. 결국 자기 오픈을 방해하게 되고, 나눔의 정도가 가벼워지거나 깊이를 상실한 표면적인 대화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소그름의 역동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좀 먹는 요인이다.

다섯째, 모임이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임의 시간이 지나치게 교제 위주라면 흘러가거나 모임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느껴질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상쇄시킬 것이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주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제공한 교재를 나누고, 함께 차와 다과 등을 나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며 오직 복음적 열정 때문이다. 다만 모여서 뜨겁게 찬양했고, 기도했으며, 주어진 교재로 나눔을 가졌을 뿐이다.

결국 모임의 핵심은 복음적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2(Fri)-15(Mon), 2017
2) Place: Anchorage, Alaska USA
-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2)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3)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4)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Oral Interview**
-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 (718) 986-8442 E-mail : kfpcny@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 고택원 목사 서기 :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 조성훈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4)

종교개혁의 중심 마틴 루터를 찾아 독일로...

아름다운 스위스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독일로 향했다. 독일의 첫 도착지인 하이델베르크에 이르러 마틴 루터에 관한 강의는 이어졌다.

하이델베르크는 대도시로 유명하다고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이 도시에 들어서자 빨간색 지붕의 고풍스러운 벽들로 지어진 건물들은 중세시대를 흡신 느끼게 했고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하이델베르크 성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성터 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의 운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한다.

이 성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개신교와 로마가톨릭교회 간의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해 양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해 파괴됐다고 한다. 지금도 무너진 성벽에는 총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고 성안의 아름다운 정원과 성 지하에 비치된 거대한 포도주 술통들, 약제 박물관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기념행사와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하이델베르크 고성의 아픔과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한 일행은 보름스로 발길을 옮겼다.

보름스 대성당의 제국회의... 루터, 성서의 진리 고수

보름스는 루터를 소환해 그의 뜻을 굽히도록 강요한 제국회의가 열린 곳이다.

보름스 대성당은 네 개의 둥근 탑과 두 개의 큰 돔으로 이루어진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칼 5세는 1521년 이곳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열었고 황제는 루터에게, 신변 안전을 약속하고 이 회의에 나와 심문을 받으라는 소환 명령서를 보냈다.

카톨릭 사제이자 비텐베르크대학 성서학 교수였던 루터가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에 도착해 제국회의장에 선 것은 1521년 4월 17일이었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성교회에 붙인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의 거리는 700여km. 한 달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주고 산 면죄

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義)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 깨달은 루터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관에 맞서 '성서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않고 가야했다. 혹시 그곳에 갔

령을 발표하였다.

"루터는 이단자이므로, 아무도 그를 자기 집에 들어거나, 음식을 주지 말고, 이야기도 나누지 말며, 그 어떤 도움도 베풀지 말라. 만일 루터를 보거든 잡아서 재판정에

성으로 들어가 용커 외르크(Junker Jörg)이란 가명을 사용하며 수염을 기르는 등 변장하고 지내게 된다.

현재 제국회의가 열렸던 주교의 뜰은 현재 보존돼 있지 않다. 보름스 대성당의 잔디밭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당에서 5분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 공원은 1868년 리첼이란 사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란 말이 새겨져 있다.

보름스를 지나서 프랑크푸르트를 둘러보았다. 그곳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직항이 개설돼 있어서 인지 한인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며 마치 독일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이라고 안내자는 설명했다.

이곳에서 레모 광장과 마임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유럽은 광장 문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문화광장, 토론, 집회, 시위, 음악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광장은 보통 시청 앞에 마련돼 있다

12세기 후반의 궁전 건물은 제국의 왕자로서 루트비히 가문의 지위를 보여주었고 1227년 형 루트비히 4세의 뒤를 이은 하인리히 라스페 4세는 교황을 지지했다. 교황 이노첸트 4세는 그를 독일의 왕으로 임명했고 1247년에 그의 죽음과 함께 루트비히 왕조는 막을 내렸다고 가이드는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성은 북쪽과 남쪽이 보이는 바위 돌출부, 아이제나흐 시를 내려다보는 숲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 성의 배치는 본질적으로 처음 요새 형태를 따랐다고 한다. 특히 궁전, 성벽, 남쪽 망루와 웅성(瓮城)이 그렇다고 한다. 외부 돌출부는 현재 일부 묻혀 있거나 폐허가 됐다고 한다.

건축 측면에서 바위 돌출부는 북쪽 끝에 닿아 있고, 도개교(跳開橋)가 있는 망루가 있으며, 다른 별채 건물들과 함께 바깥쪽 뜰을 구성한다. 그다음에는 낮은 뜰이 있는데, 이곳에는 본성과 궁전이 있고 뒤에는 기사들의 목욕장이 있었다. 남쪽 망루는 돌출부의 가장 먼 끝에 있었고 낮은 뜰의 중심에는 저수조가 있었다.

루터는 신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마르틴 루터는 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는 '성경 번역'에 착수한다. 그의 독일어판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판됐다. 그래서 '9월 성경'이라고 부른다.

이 번역 작업은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서 지배 구조에 시달린 독일 민중에게 '독일어 성경'이라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일이 됐다. 또한 동시에 그의 번역 작업은 근대 독일어의 표준이 되기도 했다. 독일어 문법과 어휘와 발음의 체계가 그의 독일어판 성경으로 일차적인 정리를 본 것이다. 루터의 '어문 정리'는 근대 독일의 문학, 음악, 건축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1999년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루터가 저술에 몰두한 공간은 소박한 나무 책상과 의자가 전부인 한 평 남짓의 작고 낡은 방이다. 이곳에 루터방(Lutherstube)이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성자 기자)

하이델베르크, 보름스, 프랑크푸르트, 은신처 바르트부르크 성까지 보름스대성당 5분 거리 공원에 종교개혁 선구자, 협력자 동상 세워



30년 종교전쟁으로 수난을 겪은 고성 하이델베르크



루터(중앙)를 둘러싸고 발데스,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등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들과 루터의 협력자들의 조각상



루터가 피신하여 머물며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기념촬영



루터가 저술에 몰두한 공간은 소박한 나무 책상과 의자가 전부인 한 평 남짓의 작고 낡은 방이다.

다가 체코의 안 후스처럼 화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면 극구 말리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안 후스는 불태웠는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다.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보름스에 많은 악마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소"라고 말하며 보름스로 향했다고 한다.

루터파문 내용 담은 보름스 칙령발표

1521년 4월 26일 루터는 보름스를 떠났다. 제국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5일, 황제 칼5세는 루터를 파문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보름스 칙

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루터를 따르는 자는 벌을 받은 물론, 누구든지 루터의 말을 전하거나 그의 저작을 가지고 있거나, 팔거나, 베풀거나 인쇄하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루터는,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독일 안에서는 루터를 지지하거나 동정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져 갔다.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던 루터는 납치를 당해 행방불명된다. 그러나 이 납치는 위장된 것으로서 루터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당시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꾸민 것이었다. 루터는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람이 만들었는데, 중앙의 루터를 둘러싸고 이태리의 발데스(1184-1218), 영국의 위클리프(1320-1384 화형 당함), 체코의 후스(1370-1415 화형 당함), 이태리의 사보나롤라(1452-1498 화형 당함) 등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네 사람의 조각상과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 헤센의 영주 필립과 로이힐린, 멜랑히톤 등 루터의 협력자였던 사람들의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루터의 조각상 밑에는 루터가 제국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해지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고 한다. 우리 일행이 프랑크푸르트를 지나 도착한 곳은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이었다.

루터의 은신처였던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바르트부르크 성은 중부 유럽 봉건 시대의 뛰어난 기념물로 문화와 다양하게 연관돼 있었다.

그리고 루터의 조각상 밑에는 루터가 제국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해지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8)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2)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대학교국제협력과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인 기독교교육에서 발견되는 여성차별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차별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 하나인 이 확실하고,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해서 비평적으로 관여되어야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이 여성차별에 대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즉 교회 내 활동에 있어서 목회자전 성도들이건 막론하고, 주로 남성이 지도적이며 주된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순종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단 하나의 올바른 모습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또한 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전 성도들이건 막론하고, 주로 고급인력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은 주로 남성들이고, 딱히 고급 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는 비 전문적인 일을 맡는 것은 주로 여성들인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교회의 대다수 목회자들은 남성들입니다. 이는 비단 한인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지요.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목회자의 소명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데다가 아직

는 것이나 강단에서 성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남성 사역자들이 행하고 있지요. 여성목회자들의 경우, 주로 심방, 전도, 다음세대 교육부서를 담당하거나 간혹 행정 및 사무(2보조), 또는 목회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여성 목회자들에게는 사역에 있어서 보다 주된 것으로 보다 지도적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담당하는 일에 제한과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사역에 있어서 그 성역할의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이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성 목회자들 대다수가 안수를 받지 못 한 것과 연관이 있으나,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의 경우에도 그 제한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합니다.

교회내 여성차별적 모습은 여성리더십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과 실행 탓 목회자나 일반교인 모두 성역할의 스테레오타입이 고착화 된 것이 문제

즉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 안에 여성차별적 모습은 없지 않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성차별적 모습의 스토리가 있고서야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해” 이 사회를 향해 행해지는 비평 사회학적 관여가 보다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인 기독교교육이 이 사회에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여성차별의 불의함과 부당함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바른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아픈 부분임을 전 사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에서 발견되는 여성차별적 모습을 발견해내고, 어찌하면 이를 견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한인 기독교교육의 영역들 중에서 그 신앙공동체 즉 한인교회 및 그 교육의 면면들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인 기독교교육 영역들 중(학교, 일터, 가정, 선교단체, 지역사회, 매스미디어 등등)에서, 교회가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차별적 모습을 드러내왔으며 그 영향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의 여성차별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가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과 그에

도 여러 교단들에서 여성목회자의 안수가 금지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한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의 경우도 개교회의 담임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으며, 여성목회자들이 일생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남, 녀 공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역시 목회자들의 위계상 가장 정점에 여성이 위치하고, 여성이 주된 예배에서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하며 그 예배를 주재하고,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고 처리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사역하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왠지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남성 목회자들 또한 여성 목회자들을 자신의 상급자로, 지도자로 섬기며 사역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현역 목회자들 중에 남성들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와중에도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나, 그 여성 목회자들마저도 그 사역의 종류와 역할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주로 순종적이며 보조적이며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목회자들의 사역의 종류와 역할 대부분은 성도들 앞에 서서 예배 및 회

또 다른 예는 목회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의 교회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교회 내 봉사의 영역에서도 성역할의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성도들과 남성성도들의 사역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남성성도들은 주로 회의 주재, 교육, 재정관리, 치리, 사회봉사 등 주요하고 지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며, 여성성도들은 주로 주방봉사 및 환경미화를 담당하며,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경우 전문적인 성경지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대되어서라기보다는 모성으로 다음세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기대되어서 맡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는 여성성도들의 의지에 닿아 있는 교회활동들은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며, 주도적이며 전문적이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을 훈련 받는 기회조차도 제한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인교회 내 편만한, 옳지 못한 여성차별적 의식과 실행들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고, 한인 혹은 한국 가정들의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들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인 기독교교육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유대인의 역할(롬3:1-4)찬43장

왜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를 그릇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1-2).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먼저 구원자를 보내 흠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잘 나타냈습니다(3). 특권을 남용해 민족주의로 치달은 그들은 본래

의 목적을 상실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지만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4). 이것은 유대인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 뿐입니다.

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롬3:5-8)찬53장

하나님을 반역한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가? 첫째, 그들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5). 악인도 심판날의 적절한 도구로 쓰이듯이 이스라엘은 불신하여 배은망덕했으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7). 이 기본원리를 무너뜨린 유대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무궁한 지혜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5). 악인도 심판날의 적절한 도구로 쓰이듯이 이스라엘은 불신하여 배은망덕했으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7). 이 기본원리를 무너뜨린 유대인은 심판을 받아야

수 해아래 의인이 없다(롬3:9-18)찬40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의 상태를 논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해 아래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부패합니까? 첫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11).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11).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그들의

생각과 기호를 바꿔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우상, 돈, 쾌락,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세속주의자가 됐습니다. 셋째,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12-18). 주어진 일반은총을 모두 악의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혼돈과 공허만이 계속됩니다. 자기 실상을 바로 알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목 인간의 전적부패성(롬3:19-20)찬28장

사도의 복음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또다시 어떻게 강조합니까? 첫째,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알지 못하고”란 사도의 확신이었습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안 그는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가뒀버린 것입니다(19). 아무리 많은 선행과 전통을 거론하는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 진노를 피할 자란 아무도 없으며 절

대질망, 절대주에 있는 죄인의 상태란 지옥자체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교만하게 하나님 심판의 제일조건이 된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 속에는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진의를 모르고 흑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 있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금 의를 세우는 복음(롬3:21-22)찬23장

본문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21).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으로 죄가 무엇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의(righteousness), 인(mercy), 신(faithfulness) 위에 서있다는 것입니다(마23:23). 둘째, 복음은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의 죽음으로 모두 성취

됐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그 의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22).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의를 소유하고 의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의를 가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의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토 복음의 실상(롬3:23-30)찬9장

사도의 복음이 잘 요약된 본문은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사실입니다(23). 모든 사람의 범죄란 개별적으로 완전 부패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 죽음이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죄가 처리됩니다(24).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

물로 보내 속량하셨습니.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은 그가 나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25). 이미 완성되는 구원 곧,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수요예배: 오전 7: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920-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문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신일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홍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72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성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 남양주시 양곡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침사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KAPC 컨퍼런스

주제: "이 시대의 종교개혁 (Reformation Today)"

일시: 2017년 4월 6일 (목) 오후 4시 ~ 7일 (금) 오후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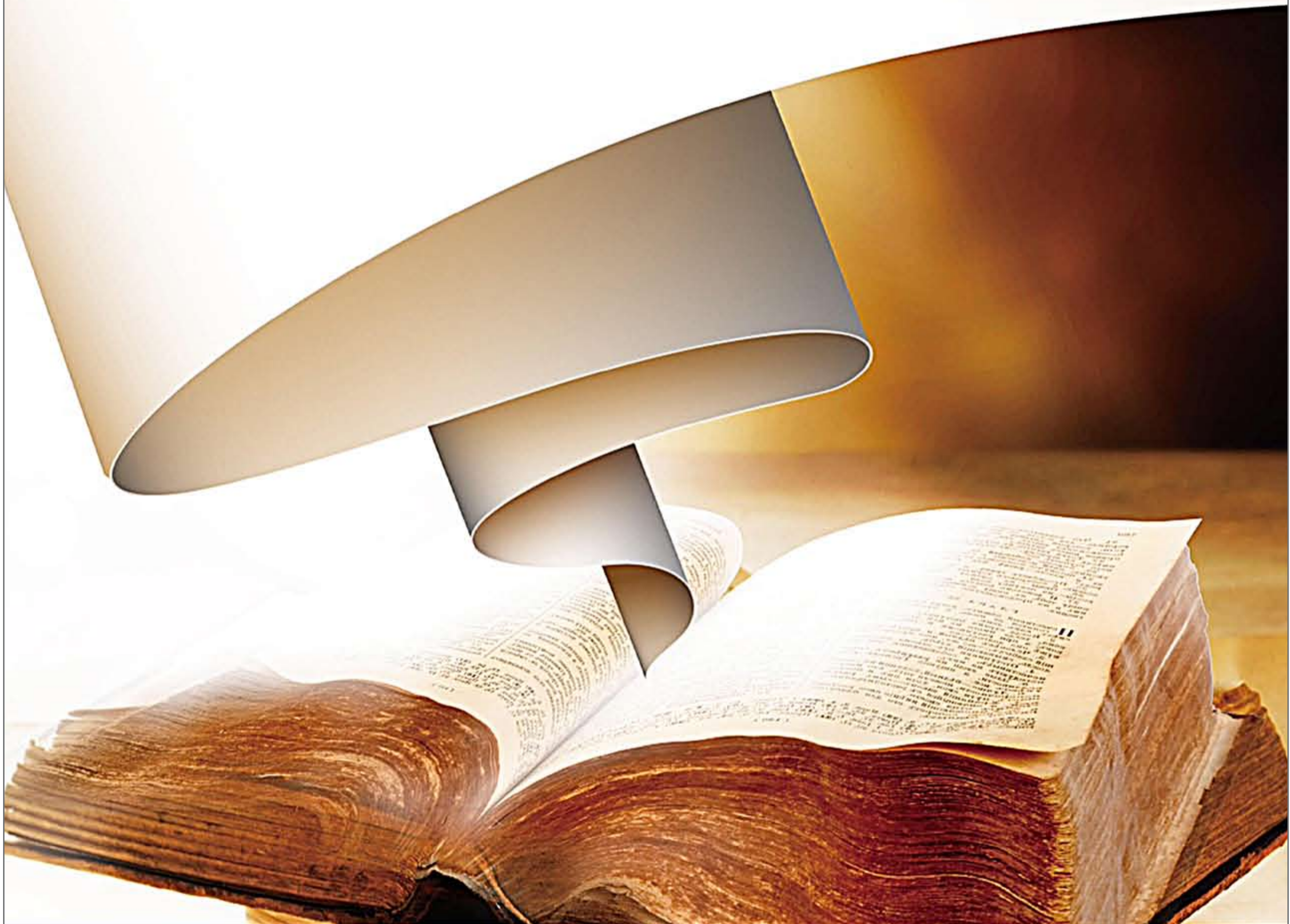
장소: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담임 박성일 목사)

1911 West Marshall Street, West Norriton, PA 19403

610-630-6300 jubileekapc.org

강사: 김성봉 목사, Frank James 총장, 김은일 교수

조진모 목사, 조영천 목사



대 회 장: 고택원 목사

부 대 회 장: 유재열 목사

총 회 서 기: 허상회 목사

총 무: 공재남 목사 (718-619-8597; davidkongca@gmail.com)

준 비 위 원: 박성일 목사(위원장), 권영국 목사, 김대엽 목사, 김미성 목사, 김현인 목사,

박원철 목사, 임현석 목사, 조성훈 목사, 최해근 목사, 한일철 목사